



CHANEL.COM THE CHANEL MOMENT - THE J12 WATCH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LA MONTRE  
J12

L'INSTANT  
**CHANEL**



조선일보  
**Style**  
MAY 2018

*Special*  
ISSUE  
2018  
BASELWORLD



KAIA'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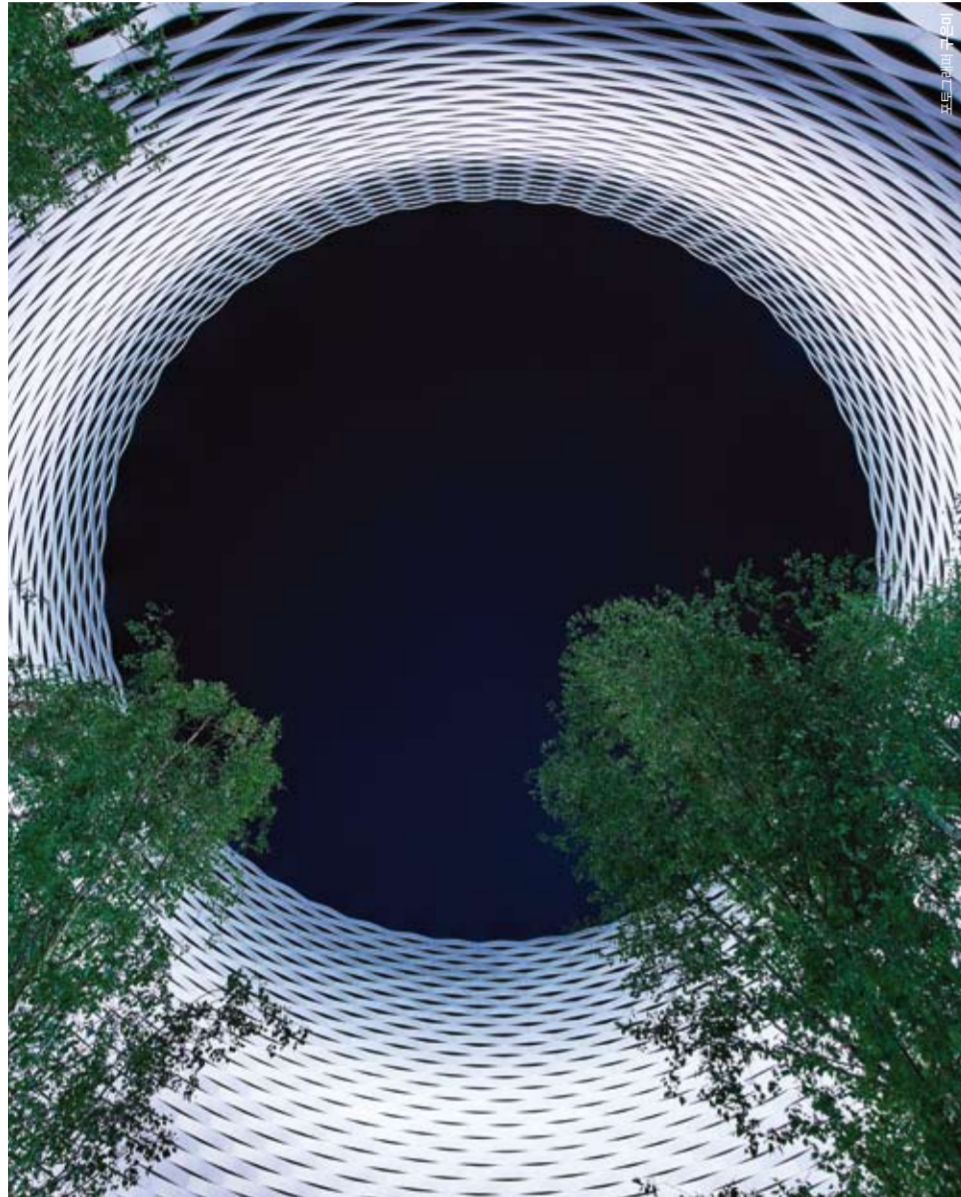


TRÉSOR COLLECTION

  
**OMEGA**

창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 Style 조선일보 Special Edition



- 07 THE EVENTS** 3월 22일부터 총 6일간 개최된 바젤월드 페어.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브랜드들이 저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자력을 드러냈다. 그 뜨거운 이벤트를 현장에서 소개한다.
- 08 SHOWTIME** 바젤월드 페어가 개최된 지난 3월, 스위스 바젤은 눈이 내릴 정도로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바젤월드 페어에 대한 기대감과 열기만큼은 어김없이 후끈 달아올랐다. 참여 브랜드 축소로 인한 우려와는 달리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인 바젤월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 10 BACK TO BASIC, 2018 BASELWORLD** 올해 바젤월드는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양적으로 팽창하던 스위스 시계 시장이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바젤월드의 역사를 이끌어온 MCH 그룹의 CEO 르네 캄(Rene Kamm)은 시계와 보석 산업의 톱 플레이어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이 특별한 특별한 바젤월드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이어온 1백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1천 년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스위스 바젤에서 직접 확인했다.
- 14 PRESENT PERFECT** 스포터하면서도 클래식한 실용적 매력과 실생활에서의 사용감이 뛰어난 데일리 워치로 제작된 바젤월드의 뉴 워치.
- 15 SPIRIT OF MARINE** 2018년은 브레게에 광장하 다이내믹한 해다. 바젤월드에 가장 눈에 띄는 신제품이자 브레게의 마린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뉴 마린 클래식' 출시와 더불어, 바다와의 오랜 인연을 더욱 가치 있게 한 '뉴 오트세이' 퍼트너십 체계를 역동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

- 는 것. 브레게의 수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티에리 에스랑거를 직접 만났다.
- 22 TECH MATE** 외관에서부터 독보적인 기계식 워치의 복잡함을 느낄 수 있는, 2018년 바젤월드를 뜨겁게 달군 하이 칼럼리케이션 워치.
- 24 NOBLE ELEGANCE** 섬세한 세공과 극적인 아름다움, 장인 정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여성 하이 주얼리 워치.
- 34 EXTREME PERFORMANCE** 유독 클래식한 모델이 많이 등장한 올해 바젤월드는 그만큼 구매욕을 자극하는 소장 가치 높은 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라인 강을 감싸 인은 아름다운 바젤의 풍경과 함께 2018 바젤월드를서 첫선을 보인 뉴 컬렉션 워치를 소개한다.
- 42 ARTISTIC EXPLORATION** 세계적인 디자인 브랜드 비트라(VITRA)가 운영하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현대 디자인사를 총망라한 곳으로, 상징적인 디자인 순례지 중 하나다. 올해 <스타일 조선일보> 바젤 특집에서 이곳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리적 위치가 자닌 특별한 때문이다. 아트 바젤과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예술의 도시 바젤에서 라인 강이라는 하나의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독일의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으로 거슬러 가면 이 아름다운 장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 44 CLICK A CALENDAR** 2018 바젤월드에 쏟아져 나온 신상품 워치 중 국내 소비자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컬렉션이 궁금하지 않은가? <스타일 조선일보>가 각 워치 브랜드 담당자에게 직접 듣고 전하는 올해 가장 주목받을, 실제로 구매 가능한 시계 리스트를 나열한 '채널즈 캘린더'를 공개한다.

▶ SHOW TIME	08
▶ PRESENT PERFECT	14
▶ NOBLE ELEGANCE	24
▶ TECH MATE	22
▶ EXTREME PERFORMANCE	34
▶ ARTISTIC EXPLORATION	42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용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류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원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장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강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B V L G A R I ROMA

SERPENTI  
BVLGARI.COM



포토그래피 박진주

**Focus**  
**CATCH YOUR DREAM**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완성한 아름다운 시간의 매력.

(왼쪽부터) 높은 예술성과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한 새로운 두 가지 시크릿 워치, 스카이 형태의 워치는 35,787캐럿, 오벨 형태의 워치는 44,24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생동감 넘치는 꽃의 움직임을 표현한 플로럴 타임라인 컬렉션, 모두 크로노, 에디터 베이진

**Close-up**  
**유럽 시장,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눈을 돌리다**

명품 시계 산업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브라이틀링 CEO 조지 켈(Georges Kern)이 한국을 방문했다. 조지 켈 회장은 1992년 태그호이어를 시작으로 IWC 샤프하우젠을 거쳐 공격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추진하는 등의 업적, 스위스 리치몬드 그룹 내 최연소 CEO라는 기록으로 정평이 난, 시계 산업의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아온 주인공. 그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 오직 한국만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조지 켈 회장은 "한국이 중국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마켓"이라며 이번 방한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조지 켈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는 1백34년 전통을 빛나는 브라이틀링의 히스토리를 비롯해 CEO가 바라보는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향후 계획과 방향성을 언급했다. "한류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PPL 마케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각광받아 중국 시장만큼이나 브라이틀링에 중요한 마켓"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내 브라이틀링 판매량이 무려 87% 가까이 성장했으며, 2년 전 방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배우 송중기가 찬 시계가 한류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한국 시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기자 간담회는 브라이틀링의 혁신적인 신제품 '내비타이머 8' 컬렉션을 포함, 지난 3월 스위스 바젤월드에서 공개한 신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날 공개한 신제품 '내비타이머 8'은 1983년 브랜드의 창립자 레옹 브라이틀링의 손자인 윌리 브라이틀링이 휴이트 항공 부서(Huit Aviation Department)를 설립하며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관계를 구축한 풍부한 항공 유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프랑스어 휴이트의 의미인 '여덟'을 컬렉션 이름에 붙였다. '내비타이머 8'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포함한 유닛타임, 데이 & 데이 트, 오토매틱 등 총 5개 모델로 출시되며 모델별로 다채로운 컬러의 다이얼을 선보이니,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에디터 **박진주**



**News**  
**ABSOLUTE POWER**

파텍필립의 기술력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매년 거듭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타 브랜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모델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이며 워치메이킹의 독보적인 절대자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스포츠 워치 컬렉션인 나utilus 워치에 최초로 파페주얼 캘린더를 적용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투르비용, 미니 리피터, 크로노그래프, 파페 주얼 캘린더를 모두 결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도 선보여 파텍필립의 장기를 마음껏 드러냈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시계업계 최초로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그곳의 시간을 소리로 표현하는 미니 리피터 워치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월드 타임 미니 리피터 5531R'이다. 파텍필립에서도 최초로 선보이는 시계로, 기존 미니 리피터는 사용자가 자국을 떠나더라도 자국의 시간을 소리로 알리지만, 새롭게 선보이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월드 타임 미니 리피터는 착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시간을 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소리로 알린다. 이와 더불어 단 하나의 푸시 버튼을 이용해 세 가지 타임 존 인디케이션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해 전 세계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고난도 기술을 집약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이얼 위에 예술적인 터치 또한 잊지 않았다. 윌리스크 워드 헤리티지 장스인 라보(Lavaux)를 배경으로 한 뿔다베의 모습을 예술적인 묘사한 것인데, 에우렐로는 표현하기 힘든, 수채화처럼 부드러운 연출 기법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에디터 **권유진**

**INSIGHT**

2018 바젤월드에서 취재한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Hot issue**  
**BE SMART!**

기계식 워치가 점점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것도 디지털적으로 말이다. 이는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 워치처럼 디지털 요소로만 이루어진 스마트워치가 아닌,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에 전자식 스마트워치 기능을 결합한 시계라는 점에서 전통 깊은 스위스 워치 브랜드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대표 주자인 '론진 콘스탄트 V.H.P.'는 올해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쿼츠 시계로 거듭났다. 였으로 다른 나라의 시간대를 맞춰 블루투스 전송하면 현재가 자동으로 시간을 설정할 뿐 아니라, 다음 목적지를 옆에 미리 저장해두고 현지 도착했을 때 크라운을 길게 누르면 시계바늘이 자동으로 목적지의 시간을 맞춰주는 것. 출장이나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토매틱 워치에 전자식 스마트워치 기능을 결합한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브리드 매뉴팩처'를 바젤월드에서 소개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스위스 시계 역사상 이례적인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시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기계식 무브먼트와 전자식 스마트워치 칩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게 한 핵심 기술인 인더-마그네트 케이스를 적용했고, 스마트워치 기능은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구동된다. 이는 시계 착용자의 활동과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칼로리 소모량, 전체 거리 추적 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코칭과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칼리버 분석 기능이 있어 매일 오전 4시에 사용자의 명령이 없을 시, 자동으로 기계식 무브먼트의 상태를 살펴준다. 측정 결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스마트 기능을 더한 '타-터치 워치'로 사랑받고 있는 티쏘는 매년 이를 업그레이드해 바젤월드에서 선보여왔다. '티쏘 타-터치 엑스퍼트 슬라'는 태양에너지로 구동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계로, 2개의 알람(주중, 주말용), 투 타임 존, 기상 예측 기능과 고고계, 로그 북과 크로노그래프 램프 스톱워치 타이머, 나침반, 타이머 등 액티브한 남성성을 시루잡을 다양한 기능으로 중무장했다. 또 자체 예코 모드 기능이 있어, 착용자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을 때 에너지 절약 모드로 변환되어 모든 기능이 중지됨과 동시에 예코 모드를 풀면 자동으로 시간이 맞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오토 모드가 따로 있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알로그 시계 침은 그대로 작동되고, 디지털 창안 스동되거나 시계의 진화가 놀라울 뿐 아니라 **권유진**



**BVLGARI**  
**축하 파티의 열기로 가득 찬 불가리의 특별한 밤**

올해 불가리 부스에서는 매일 자마다 파티가 끊이지 않았다. 옥토 피-씨모 푸르비용 오토매틱이 3.96mm 두께로 올해 내 번째 신기록을 달성했고, 여성 주얼리 워치메이킹 1백 주년을 맞이하며 축하할 일이 끊이지 때문. 디지털 키터엔피티부터 어쿠스틱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매일 밤 불가리 부스를 뜨겁게 달궜고, 불가리 CEO 장 크라스토퍼바랭, 불가리 워치 매니징 디렉터 귀도 타레오와 불가리 엠베서더인 배우 서기, 로라 해리어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불가리의 밤을 더욱 빛냈다.



**CHOPARD**  
**윤리적으로 채굴한 골드에 전념하다**  
지난 3월 22일, 쇼파드는 바젤월드에서 2018년 7월부터 주얼리와 워치 제작에 100% 윤리적으로 채굴한 골드로 사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에 배우 콜린 퍼스 부부, 줄리안 무어, 모델 에리크나 유즈 등이 참석했다. 쇼파드 공동 대표 칼 프리드리히 슈펠트는 "쇼파드는 국제 최고 수준의 관행을 준수하며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금광에서 윤리적으로 채굴한 금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의미 있는 발표를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과감한 결정이지만, 그간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려면 꼭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쇼파드의 이 확고하고 아름다운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the Events**

3월 22일부터 총 6일간 개최된 바젤월드 페어.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브랜드들이 저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저력을 드러냈다. 그 뜨거웠던 이벤트 현장을 소개한다.

**CALVIN KLEIN**  
**라프 시몬스의 첫 시계 공개**

2017년 칼빈클라인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 올해는 그의 타임을 다한 첫 시계를 바젤월드에서 공개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칼빈클라인 고유의 DNA는 그대로 유지하되 젊음, 대담함, 팝이라는 강력한 콘셉트 아래 보다 생동감 있게 변신한 것. 이를 기념해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는 바젤월드에서 이번 시즌 광고와 함께 매력적인 시계를 공개하는 파티를 진행했다. 단연 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고, 라프 시몬스의 첫 번째 시계 시장은 기성 성공작이었다.



**BREGUET**  
**마린을 향한 브레게의 열정**

브레게의 오랜 마린 전통은 2018년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시적을 알렸다. 2018 뉴 마린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해양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Race for Water'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뉴 오딧세이 프로젝트'를 바젤월드에서 발표한 것. 이와 함께 바젤월드 메인 홀에는 브레게의 오랜 마린 역사와 'Race for Water' 재단의 선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마린 에디션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마린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다짐고 강조했다.



**ZENITH**  
**별을 향해 나아가다**

지난 3월 21일, 새롭게 디자인된 제스 부스에서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VMH 시계 부문 회장 장 클로드 바버와 제스 CEO 줄리앙 토르레가 바젤월드의 기쁨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줄리앙 토르레는 "2018년에는 제스의 상징인 피파와 파일렛 컬렉션의 확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데피 리오노 올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메인 홀에는 브레게의 오딧세이와 'Race for Water' 재단의 선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마린 에디션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마린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다짐고 강조했다.



프레스 센터 로비의 모습. 작년까지 바젤월드 건물 밖에 위치했던 라이브리리가 올해는 프레스 센터 로비에 뉴스 코너라는 이름으로 자리해 더욱 쉽게 세계 매거진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바젤월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전세계 다양한 시계 집객을 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게 해 수많은 프레스들이 오래 머물렀다.



바젤월드 센터에 자리한 원형 건축물을 포함해 바젤월드 건물은 어느 방면에서 보든 작품을 감상시킬 정도로 건축미가 뛰어나다. 바젤월드 외관 및 내부는 프리츠카싱을 수상한 헤어초크 & 드 뮌른(Herzog & de Meuron)이 리디자인한 것이다.



올해 스마트워치를 포함해 역동적인 워치 컬렉션을 선보인 위블로는 이 워치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전용 부스 안에 마련했다. 사진은 터치 패드를 통해 제품 사양을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 T·show Time

바젤월드 페어가 개최된 지난 3월, 스위스 바젤은 눈이 내릴 정도로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바젤월드 페어에 대한 기대감과 열기만큼은 어김없이 후끈 달아올랐다. 참여 브랜드 축소로 인한 우려와는 달리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인 바젤 페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오메가 나토(NATO) 스트랩 팝업 부트릭.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기존 시계에 다양한 나토 스트랩을 직접 장착해보는 재미를 주었다. 나토 스트랩은 18가지 옵션의 나뉠별 국기를 모티브로 한 컬렉션을 포함해 브라운 레더, 스틸과 파우더의 나일론 패브릭 등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출시한다. 그것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라!



해가 저문 늦은 시각, 환한 조명이 켜진 바젤월드 센터를 빠르게 통과하는 트램의 모습을 포착했다. 우주선을 닮은 상징적인 원형 건축물은 조명 빛을 받아 더욱 드라마틱한 모습을 연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너스 부스 앞에는 포토 존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제너스는 이번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에-치로 중반한 매력적인 데피 엘 프리메로와 데피 랩 신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태그호이어의 CEO 칭 클로드 비버의 칸파인스로 바젤월드의 시선을 끌던 태그호이어 부스 앞에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그는 '전통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그러나 혁신이 없어도 미래는 없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메세 바젤 센터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는 중부 유럽 최대의 강이자 글자지 수로인 라인강이 흐른다. 바젤월드 개최 기간에는 강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 곳곳에서 바젤월드의 상징인 파란색 깃발과 스위스 국기가 함께 팔라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다리 위로는 바젤을 상징하는 트램이 지나간다.



바젤의 명소 중 하나인 바젤 대성당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풍경.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트램이 달리고 있고, 그 뒤편으로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구시가지와 현대적 건물의 조화가 눈에 띈다.



바젤월드 공식 오픈닝 날인 3월 22일 아침 8시에 촬영한 바젤 역 풍경. 전날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역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가득 찼다. 바젤월드는 이곳에서 축제와도 다름없는 중요한 행사로, 이 기간에는 기차도 민생을 이룬다.



바젤 SBB 기차역, 바젤 페어가 열리는 메세플라츠(Messeplatz) 장거점으로 가는 트램 3개의 노선이 이 앞을 통과하고 역 앞에는 'Welcome(환영합니다)라고 쓰인 깃발과 함께 바젤월드 인포메이션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매년 바젤월드 볼가리 부스에서는 이곳을 방문한 볼가리의 앰배서더를 목격하는 즐거움이 있다. 올해는 배우 사샤를 포함해 배우 로라 헤라더, 모델 존 코르타지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배우 로라 헤라더다.



부스에 디스플레이된 시계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 과거에 비해 참여 브랜드는 줄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주요 럭셔리 브랜드가 모여 있는 홀 1은 차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갖춘 개인 워치메이커의 독립된 워치 공방 브랜드의 제품을 전시하는 레이틀리에 존이 홀 1.2에서 홀 1.1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선 한국 워치메이커의 시계도 만날 수 있었으며, 개인 공방에서 1년에 단 1~2점만 완성하는 아티피스틀을 소개했다.



홀 1.1 모습. 에르메스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쇼룸에 참석하면서 에르메스 부스가 자리하던 곳에는 자클 & 코(Jacob & co)의 부스가 새롭게 동자를 들었다. 이 밖에도 홀 1.1에는 그라프, 스와로브스키, 카시오, 세이코 등의 부스가 자리했다.



바젤월드에서 가장 눈부시게 반짝이는 곳. 바로 스와로브스키 부스다. 주얼리, 워치는 물론 패션, 라이프스타일까지 모두 아우르는 스와로브스키는 올해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를 세팅한 쇼룸을 배치하고 홀 1.1으로 활용해,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관람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인스타그램 #SwarovskiBaselworld 해시태그로 확인 가능하다.



# back to basic, 2018 Baselworld

올해 바젤월드에는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양적으로 팽창하던 스위스 시계 시장이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바젤월드의 역사를 이끌어온 MCH 그룹의 CEO 르네 캄(Rene Kamm)은 시계와 보석 산업의 톱 플레이어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이 특별한 박람회인 바젤월드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대로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6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중 5개의 브랜드가 신제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만으로 기존 워치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브랜드들의 입점을 거절하며 순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지금까지 이어온 1백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1천 년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스타일 조션일보)가 스위스 바젤에서 직접 확인했다.

“스마트 워치에 사용하는 기술은 순식간에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계식 시계에 사용하는 메카니컬을 기반으로한 기술은 영속성이 뛰어나죠. 진부한 것은 영원한 것과 절대 경쟁할 수 없습니다.”

LVMH 시계 부문 수장 장클로드 비버

## Made in Swiss 위치의 역사,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2018 바젤월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참여 브랜드의 숫자와 규모, 방문객이 줄어든 데 대해 의문과 불만을 표사했다. 외신 기사에도 부정적인 방향의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 박람회가 올해 개최 1백1주년을 맞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위스의 작은 무역도시 바젤에서 매년 3월 말 개최되는 바젤월드는 전 세계 시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산업과 산업의 만남이다. 10일 전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시계업계 리더들과 미디어를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다. 단순히 참여 브랜드 숫자나 SNS 팔로어 수에 대한 계속적 수량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언할 수 없는, 시계 산업에 있어 의미 깊은 교류의 장인 것이다.

어떤 산업이든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굴곡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5년여간, 시계 산업에도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시장 침체만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대변되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급진적인 확장은 시계의 기능적 한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기계식 시계 산업을 새로운 혁신과 창조라는 새로운 목표로 이끄는 효과도 가져왔다. 2015년과 2016년에 역성장 기록했던 스위스 워치 시장은 스마트워치라는 자극으로 2017년 가장 어려운 시기에 2.7%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남겼다. 1970년대 퀴즈 파동으로 대변되는 전자식 시계의 출시로 기계식 시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다. 10여 년 전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인의 취향을 고려한 에디션 출시했을 때, 유례 없는 호황이었고 각 브랜드는 물론 바젤월드도 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보이지 않는 곳부터 끓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인 디자인

과 기술보다 외장에 치중하는 트렌드는 스위스 시계 시장의 지속성과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나나 다를까, 2013년 중국 본토의 반부패 사정이 시작된 후에는 내실을 다지 지 못한 많은 브랜드가 사라졌고, 아시아 시장 점령을 목표로 급격히 사업을 확장한 브랜드들은 더 큰 회사에 인수·합병되거나, 구조 조정을 거치는 시련을 겪었다. 그 후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는 단순히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신제품을 내세우는 것이 'Made in Swiss'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2018년 현재 본연의 가치인 워치메이킹과 장인 정신, 합리성, 완성도라는 목표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맸다.

## 1백1년 역사의 바젤월드,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이렇듯 길고 긴 격변의 역사 속에서 스위스 워치메이킹 비즈니스의 중추신경 역할을 해온 바젤월드는 수많은 시련을 워치 브랜드들과 함께 이겨냈다. 기계식 시계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스마트워치의 등장, 중국 소비자의 빅 웨이브, 세계업계의 혁신을 이끈 장클로드 비버의 LVMH 그룹 워치 부문 수장 발령으로 시작된 지각변동(현재 그는 태그호이어, 위블로, 제니스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5년 기계식 시계의 대명사 태그호이어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워치인 '커빅티드 워치'를 출시해 시장을 간성시켰다),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가치 변화와 같은 엄청난 이슈가 지난 10여 년간 시장 전체를 관통했지만, 스위스 시계 시장이 여전히 건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젤월드라는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전시위원회 회장 프랑수아 티에보는 시계 산업에서 바젤월드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바젤월드는 매년 전체 산업계가 한곳에 모이는 독특한 박람회이고, 이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창조성입니다. 박람회에서 엿볼 수 있는 창조성에 영감을 받을 뿐 아니라 시계를 대하는 순수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이죠”라고 이야기한다. 바젤월드는 시계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할 뿐 아니라 품질과 매력을 비교하는 장이 되고, 산업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각 브랜드의 소망, 가치를 재조명해 콘셉트로 만들어 널리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바이어와 미디어가 바젤에 모여 산업의 맥박을 느끼고, 새로운 컬렉션의 탄생을 기념하며, 혁신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바젤월드 매니징 디렉터 실비 리더는 “바젤월드는 시계 및 주얼리 산업을 특징짓는 창조성과 긍정적인 마인드, 진정성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 지속적으로

9월 14일 04:28

투자하는 기회의인 것이다. 바젤월드의 본질은 시장을 반영하고 전사자, 바이어, 미디어 같은 다양한 전문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바젤월드는 절대 멈추지 않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워치메이킹 기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도 바젤월드가 큰 역할을 한다. 모든 기술이 이곳에서 첫선을 보이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교류된다. 소비자가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 시계를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시계 브랜드 제품보다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계가 바젤월드에서 인증받았음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높은 품질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바젤월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화학작용은 단순히 참가 브랜드 수의 증감만으로 단언할 수 없는 가치다.

## 스위스 시계의 역사를 되새기는 복각 모델의 등장

이러한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가치를 다시금 정비하기 위한 브랜드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이다.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주력하는 브랜드보다는 시계 고유의 가치를 지닌 브랜드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올해 유난히 눈에 많이 띈 것은 가장 클래식한 모델의 복각 버전이다. 물론 단순한 재현을 넘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아름다운 컬렉션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블랑팡의 ‘빌레레 플라잉 투르빌론 점핑 아워 레트로그라데 미닛’. 1989년 플라잉 투르빌론을 손목시계에 최초로 구현한 브랜드가 블랑팡이라는 사실을 리마인드시킨다는 의미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대변하고 있다는 뜻에서도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블랑팡 컬렉터들에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모두가 퀴즈 모델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선보이던 1970~80년대에도 기계식 시계만 만들겠다고 선언한 블랑팡이기에, 수많은 변화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장 클래식한 피스를 만드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오메가는 씨마스터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1948년 모델의 클래식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두 피스의 복각 모델 ‘씨마스터 1948 스톤 세컨즈’와 ‘씨마스터 1948 센트럴 세컨즈’를 선보였는데, 이 역시 소장 가치가 높다. 1948년 첫선을 보인 씨마스터가 지금까지 월드 베스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오메가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꾸준히 지켜온 완성도가 확실한 기반이 되어주었음은 물론이다. 최근 오메

가는 판매량이 늘어감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A/S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한 제품의 보증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등 브랜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오메가의 이러한 행보가 다른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바젤월드를 소개하는 글의 서두에 오메가는 “2015년 이후 오메가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는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인정을 받은 정확성, 항자성, 크로노미터로서의 성능을 고객에게 제공해왔다. 1848년 워치메이킹을 시작한 이래 1백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오메가 브랜드 DNA의 중심에는 항상 무브먼트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메가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선언했다. 브레게 역시 해군 워치의 가치를 대변하는 마린 워치를 새롭게 선보이며 오랜 역사를 이어온 워치메이킹 브랜드의 강렬한 매력을 다시 드러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컬렉션임에도 기존 브레게의 마린 컬렉션의 뛰어난 완성도를 담았기에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히스토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스위스 워치 브랜드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다. 올해는 이러한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가치를 반영한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었고, 이는 단순히 화려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보이던 최근 시계 시장 트렌드에 벗어나 곳곳이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양적 성장이 반드시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동력이 되는 바젤월드가 앞으로 더 긴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브랜드 홍보관이 아니라 스위스 시계 수출의 80%를 책임지는, 시계와 주얼리 산업의 교류를 위한 필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속성’을 위해 재정비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예술 작품과 같은 시계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접점을 제안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의 아름다운 히스토리를 갖춘 시계들이 다시금 등장할 타이밍이 되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시계를 2018년 바젤월드 전면에 내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시계는 매조를 측정하지만,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간과 긴 여정을 함께한다.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가 언제나처럼 앞으로 1백년, 혹은 1천 년을 기억하기 위해 올해를 기점으로 스위치 워치메이킹의 본질에 몰두한다면 바젤월드의 히스토리는 더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취재)



# The Mastery of Time

"2018년 세계 트렌드는 북극 워치, 스포티즘,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워치,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브레게 역시 올해 바젤월드에서 이런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게 CEO 테리에르 에스망거*  
 브레게의 유구한 마린 전통을 더욱 젊고 스포티하게 재해석한 '뉴 마린' 워치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컬렉션의 신제품까지, 올해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인 브레게의 핵심 시계들이 이 페이지에 펼쳐진다.

##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숨결이 담긴 찬란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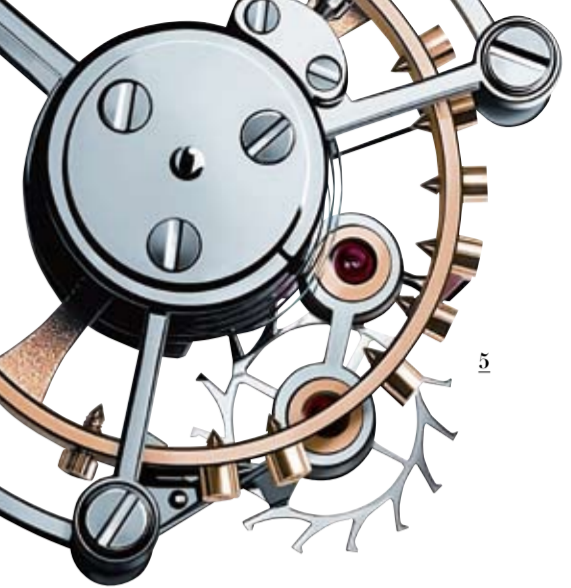
오랜 역사가 이뤄낸 위대한 유산과 스토리의 힘은 세계 역사의 산증인인 브레게를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세계 산업에 대혁명을 일으킨 투르비용의 기원, 가장 위대한 시계 발명가, 유럽을 뒤흔든 명사들을 배출시킨 최고의 현사물이라는 많은 수식어는 브레게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세계 역사를 대표하는 수많은 타임피스들 선보이며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손꼽히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1775년 태엽과 진자가 2개인 최초의 오토매틱 시계 '셀프와인딩 페퍼추얼 워치'를 선보이면서 이름을 알렸고, 1783년에는 마린 라피터 시계의 핵심인 공 스프링을 무브먼트 외곽으로 감싸는 형태를 고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1786년에는 다이얼에 지금까지도 미학적인 요소로 적용되는 기묘한 문양을 데카레이팅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1790년에는 충격 방지 장치인 파라슈트를 개발하고, 1801년에는 현재도 세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투르비용을 특허 출원하는 등,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워치메이킹 기술 중 다수가 브레게에서 비롯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다. 그 일생 동안 이룩한 이런 기술적 업적을 통해 브레게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객을 위한 최고의 타임피스가 되었다. 특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의 여왕인 카롤린 왕자를 위한 최고의 현사물이라 여겨지며 유럽 역사의 한 부분으로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2백여 년 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브레게의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들은 그 자체

만으로도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과거의 기술력과 전통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워치메이킹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레게 CEO 테리에르 에스망거는 (스타일 조선클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은 15p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브레게의 워치메이킹 기술은 2백40년 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한 방식 중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브레게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전통은 브레게의 워치메이킹 기술에 녹아 있고,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브레게의 모든 타임피스에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교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향한 집념과 2백40여 년간 이어온 혁신적인 기술력은 브레게가 보유한 최고의 자산으로, 브레게가 명성을 이어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브레게 마린 전통에 대한 헌사, 뉴 마린 컬렉션**  
 항해와 천문 등 고전적인 시간 기록 분야에서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특히 브레게와 프랑스 해군의 관계는 브랜드의 역사를 넘어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 사실은 올해 바젤월드에서도 다시금 강조되었는데, 지난해 브레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마린에 대한 열정이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 2017년에 첫선을 보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마린 에리시용 마상 5887의 연장선으로, 브레게는 더욱 진화한 버전의 세 가지 마린 모델을 바젤월드 핵심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바젤월드 메인 홀에서는 마린 워치 전시와 함께, 바다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Race for Water'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특별 에디션 워치도 선보였다. 브레게 해군 워치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018 뉴 마린 컬렉션'은 마린 그 자체로,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오마주까 아닌, 마린에 관련된 브레게의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시계에 그 더욱 의미가 있다. 시계를 살펴보기 전, 브레게와 프랑스 해군의 스토리를 먼저 읽고 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브레게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루이 18세는 1815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를 왕정 해군을 위한 워치메이커로 공식 임명하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선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브레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왕정을 위한 워치메이커 직위는 단 한 사람에 한 수직은 아주 명예로운 타이틀로, 이는 브레게가 그 당시 워치메이킹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한다. 브레게는 활동 기간 동안 프랑스 왕정 해군의 함대인 로얄 루이에 탑재된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하는 한편, 1815년과 1823년 사이에는 마린 워치라 불리는 78개의 시계를 판매해 해군의 발전을 도모했고, 이것이 바로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시초가 되었다. 이런 창립자의 스토리를 담아 마린의 DNA를 더욱 강화한 3세대 버전의 마린 5517은 다이얼 위에 바다를 연상시키는 물결무늬 기묘세 장식과 파루가 떠오르는 라그, 해군 국제 신호기 알파벳 'B'에서 영감을 받은 초침, 펄프(자)에서 영감을 받은 오실레이팅 웨이트까지, 마린을 상징하는 섬세한 디테일을 엮을 수 있다. 특히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볼 수 있는 무브먼트는 배의 갑판을 연상시켜 진정한 마린 워치의 면모를 과시한다.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타타늄으로 선보이는데, 타타늄의 경우 마린 컬렉션에 처음 사용한 소재로, 이는 부식에 강하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해 내구성이 무엇보다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스트랩 옵션과 함께 보다 젊고 스포티한 감성의 라버 스트랩도 만날 수 있다. 이는 다소 보수적이고 클래식한 워치가 주를 이뤘던 브레게에서도 스포티한 시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계 컬렉터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브레게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인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더한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도 만날 수 있다. 마린 5517과 마찬가지로 섬세한 해군의 상징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시 방향에 분을 위한 서브 다이얼과 6시 방향에 시를 위한 서브 다이얼을, 9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를, 4와 5시 사이에는 날짜 인디케이터를 배치해 기본 모델에 비해 더욱 스포티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브레게는 브랜드의 뛰어난 기술력을 모두 담아낸 3개의 기능을 장착한 마린 알람 뮤직 5547을 선보여 뉴 마린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알람 기능을 포함해 세컨드 타임 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계는 알람 기능을 구동하면 12시 방향의 작은 원형 창에 총 모티브가 모습을 드러내고,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며 시간을 상기시킨다. 알람 인디케이터는 3시 방향에, 세컨드 타임 존은 9시 방향에 자리하고, 알람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9시와 12시 방향 사이에 따로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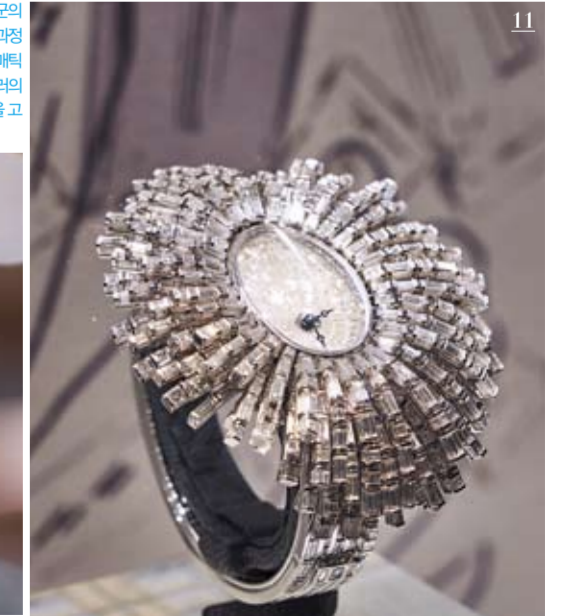
**순백의 다이얼 위, 투르비용으로 승부수를 띄우다**  
 기계식 워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면,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삶과 업적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브레게가 발명한 워치메이킹 기술은 무궁무진하다. 그중 지금까지도 세계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인 투르비용은 브레게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컬렉션에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는데, 이제까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라인에서는 선보인 적이 없는 우아한 그랑 피 에 누벨 다이얼을 탑재한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 플랫 오토매틱 5367'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미니멀한 다이얼 위의 주인공인 투르비용을 극도로 단순하고 아름답게 해석한 것이 특징으로, 도자기처럼 매끈한 순백의 다이얼 위에 오로지 투르비용만 부각할 수 있도록 다이얼 위에는 다른 디테일은 생략하고 필수적인 것만 담았다. 2013년에 선보인 5377 모델과 대조적으로 2018년 모델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따로 놓지 않았으며, 타타늄 소재의 투르비용 케이스를 탑재했다. 또 브랜드 고유의 블루 브레게 핸즈는 전통적인 에펠의 완벽하고 순수한 화이트 컬러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동시에 뛰어난 가독성을 자랑한다. 11시 방향에는 브레게 아비바자지를 갖춘 챌린지 중심을 벗어나 자라고 있으며, 5시 방향의 투르비용과 마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배치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나폴리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앞부분은 극도로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무브먼트의 경우 화려하고 풍성한 데카레이팅을 담아낸 것 또한 엿볼 수 있다. 단순한 디자인 뒤에 수소의 워치메이커만이 구현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을 적용한 것. 브리지, 베젤, 로터는 모두 손으로 인그레이빙했으며, 더 큰 관심을 위해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된 로터는 무브먼트 주위를 회전하도록 디자인하고, 두께를 더욱 슬림하게 줄여 시계를 방해하는 요소 없이 무브먼트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 플랫 오토매틱 5367'의 두께는 7.45mm, 무브먼트의 두께는 3mm에 불과해 진보한 브레게의 기술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더욱 극대화한다. 이는 화려한 장식을 더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타임피스로, 최상의 워치메이킹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브레게의 가치와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여성 컬렉터들의 선택, 레인드 네이플**  
 독특한 에그 셰이프의 시계 페이스인으로도 '브레게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대표하는 여성 워치, 레인드 네이플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수직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레인드 네이플은 올해 영롱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타히타산 마더오브벌 다이얼을 더해 마더오브벌을 더욱 살려준다. 올해 선보인 이 제품은 2002년에 선보인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의 첫 타임피스인 레인드 네이플 8908을 새롭게 해석한 모델이다. 문페이즈와 12시 방향의 스톱워치 인디케이터, 중심에서 벗어난 6시 방향의 아이리쉬와 7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 등 오리지널 모델의 주요 특징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강조했다. 이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나폴리의 여왕인 카롤린 왕자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순백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카롤린 왕자가 주문한 타임피스처럼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셀프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기계식 워치의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여성 시계로, 브레게가 추구하는 혁신과 완벽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 02-3479-1008에서 **권유진**



1 올해 바젤월드 노벨티 중 가장 핵심 워치인 마린의 DNA를 더욱 강화한 3세대 버전의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과 마린 5517 워치. 다이얼에 새겨진 피도 물결무늬 기묘세 패턴과 해군의 국제 신호기에서 영감을 받은 초침 등 해군의 상징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2, 8, 9 0번 바젤월드 기간 동안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은 브레게 부스. 3 부스 내부에 브레게 워치메이커의 작업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마련했다. 4 라버 스트랩으로 더욱 스포티한 면모를 강조한 마린 5517. 5 투르비용의 원소, 브레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 플랫 오토매틱 5367'에 적용한 투르비용 렌더. 6 순백의 그랑 피 에 누벨 다이얼 위에 오로지 투르비용만 강조해 우아함을 극대화한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 플랫 오토매틱 5367'. 7 오묘하고 매혹적인 컬러의 타히타산 마더오브벌을 다이얼에 여성 컬렉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레인드 네이플 8908. 10 브레게 부스에 전시된 '브레게 마리 앙투아네트 N1 160 포켓 워치'. 브레게의 2백40년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타임피스다. 11 탄생지인 나폴리 근교의 화려함에 많은 이들이 눈을 사로잡은 브레게가 주얼리 워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도 커맨더 빅 데이트** 올해 창립 1백 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기동성 뛰어난 워치. 지름 42mm 원형 케이스에 묵직한 느낌의 스테이 디얼과 파노시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준다. 파리 에펠탑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6시 방향에 빅 데이트 창을 넣어 날짜 기동성을 높였다. 문의 02-3149-9599

**티소 에브리타임 스위스 메릭** 3인칭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스위스 메릭 무브먼트를 탑재한 대형의 워치. 디자인이 심플해 스포츠와 캐주얼 모두에 어울릴 수 있다. 유려한 케이스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으로 모든 남성에게 잘 어울린다. 문의 02-543-7685

**라도 다이아미터 스몰 세컨드 오토매틱 COSC** 플라스틱과 티탄 공정을 통해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메탈릭 룩의 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갖춘 하이테크 세라믹을 활용한 라도 대표 워치. 기법과 내구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다. COSC 인증을 받아 더욱 정교하게 시간을 표현한다. 문의 02-2639-1964

**루빈 하이드로 콘퀘스트** 브랜드 고유의 기차인 우아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스포티한 기능을 갖춘 섹스피어인 기차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 300m 방수 기능, 단방향 회전 베젤, 크라운 보호 기드, 이중 전 아시 버클까지, 워터 쇼크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올해 첫선을 보인 그레이 컬러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 문의 02-6905-3519

**해밀턴 제츠마스터** 제츠마스터 시리즈인 오토매틱 컬렉션의 가장 특별한 점은 워치에 맞게 스텔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풀사이즈 처리한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가벼운 클리 시스탤으로 처리, 탠 블랙 또는 올리브 가죽 중 원하는 스트랩을 선택해 직접 바꿀 수 있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배미진**

# present Perfect

스포츠하면서도 클래식한 실용적 매력과 실생활에서의 사용감이 뛰어난 테일러 워치로 제격인 바젤월드의 뉴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irit of Marine

2018년은 브레게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해다. 바젤월드에 가장 눈에 띄는 신제품이자 브레게의 마린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뉴 마린 컬렉션' 출시와 더불어, 오랜 바다와의 인연을 더욱 가치 있게 한 '뉴 오트세이' 파트너십 체결로 더욱 역동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 브레게의 수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티에리 에슬링거에게는 CEO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바젤월드이기도 한 뜻깊은 올해, 그의 의미 있는 현장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01 2백40년 전통의 브레게 고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브레게의 위대한 유산이야 아닐까요? 즉, 브레게의 핵심 가치는 브레게가 지난 워치메이킹 기술이에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브레게의 워치메이킹 기술은 2백40년 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한 방식 중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브레게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통을 지키고 있죠. 이런 전통은 브레게의 워치메이킹 기술에 녹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이얼에 새긴 기묘세 문양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는 워치메이커가 직접 손으로 인그레이팅하는데, 과거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 선보인 제품은 물론 올해 바젤월드에 소개한 모든 브레게의 타임피스에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시계에 대한 열정과 장인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2 이처럼 방대한 브레게의 아카이브는 어떻게 관리·유지하고 있나?**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브레게의 히스토리와 아카이브를 2백 년 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창조한 모든 시계와 기술, 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정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고, 이런 유산을 지금까지 유지·보호하기 때문이죠. 우리 과거부터 이어져온 워치메이킹 룰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런 룰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브레게가 고수해온 원칙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아어온 룰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브레게의 시그니처를 집어낸 클래식 컬렉션의 시계는 과거 포켓 워치의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포켓 워치를 그대로 축소해 손목시계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듯 기존의 룰을 현대 타임피스에 그대로 적용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어요. 과거의 마린 워치나 이번 선보인 뉴 마린 컬렉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아카이브를 초석으로 했기에 안듯 봐도 브레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죠.

**03 이번 바젤월드에 발표된 뉴 오트세이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뉴 오트세이 스폰서십은 뉴 마린 컬렉션의 문장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해양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 브레게의 의지를 알리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브레게는 1990년 1세대 마린을 처음 선보였고, 2005년에 2세대 마린을, 그리고 올해 3세대 마린인 뉴 마린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계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2018년 바젤월드에 처음 발표된 3세대 마린 컬렉션은 2017년 첫선을 보인 마린 에라시움 마스터의 연장선으로, 2세대 마린에서 소재와 디자인 요소를 진화시켰습니다. 기존 마린 컬렉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티타늄을 사용했고, 다이얼 위를 물결무늬의 기묘세 장식, 해군의 국제 신호기 알파벳 B에서 영감을 받은 초침, 배의 조타에서 영감을 받은 오슬레이팅 워치까지, 디자인적 요소를 대폭 변화시켰죠. 이런 3세대 마린 컬렉션의 문장을 축하하고자 'Race for Water' 재단의 '뉴 오트세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개 지역을 돌며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해양 생태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브레게는 산체에 적합한 선원들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제작하는 등 운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4 2018년 시계 산업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시계 산업의 키워드는 복각 워치예요. 단순히 디자인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티 워치에 담긴 역사와 스토리에 주목하는 거죠. 마린 컬렉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와 프랑스 해군의 깊은 관계를 담은 시계죠. 루이



1 브레게 CEO 티에리 에슬링거. 2 브레게의 마린 DNA와 스토리를 담은 마린 5517. 3 브레게의 마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젤월드 메인 홀에 마련한 특별 전시 공간. 4 티에리 에슬링거가 착용한 마린 알람 뮤지컬 5547. 5 티타늄 마더오브랄을 다이얼에 적용한 2018년 마린 레인드 네이틀 6808. 6 해안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브레게는 'Race for Water'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을 후원한다. 7 'Race for Water' 대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브레게 마린 스페셜 에디션.

18세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를 프랑스 왕정을 위한 크로노미터 제작자로 공식 인정했어요. 이 직위는 단 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아주 명예로운 타이틀이죠. 브레게는 프랑스 왕정 해군의 함대인 로얄 루이에 탑재된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했고, 바로 이것이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시초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스토리에서도 볼 수 있듯 브레게는 시계 산업 트렌드의 리더로서 단순히 제품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각 워치 트렌드와 더불어 시계가 점점 스포티해져 가는 것이 브레게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뉴 마린 컬렉션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으로 탄생했었거든요. 또 컴플리케이션 워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컴플리케이션 워치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선보인 마린 에라시움 마스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하이 타임피스에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집어낸 선보였는데, 특히 군사력을 직관적으로 구현한 골드 핸즈를 추가한 것은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브랜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브레게는 여성 컬렉션에서도 두드러진 관심을 받고 있다. 브레게는 이러한 여성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 브레게는 레인드 네이틀을 비롯해 여러 여성 워치를 통해 여성 고객을 매료하고 있고, 여성 워치 컬렉션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드 네이틀은 제품의 예그 세이프티으로도 브레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브레게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컬렉션이에요. 레인드 네이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브레게의 고객으로서 나폴리의 여왕이자, 나폴레옹의 여동생 카롤린 무리를 위해 시계를 제작했는데, 그 시계는 현재의 레인드 네이틀과 동일한 예그 세이프티. 올해는 화려한 티타늄 마더오브랄을 적용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



1 브레게 CEO 티에리 에슬링거. 2 브레게의 마린 DNA와 스토리를 담은 마린 5517. 3 브레게의 마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젤월드 메인 홀에 마련한 특별 전시 공간. 4 티에리 에슬링거가 착용한 마린 알람 뮤지컬 5547. 5 티타늄 마더오브랄을 다이얼에 적용한 2018년 마린 레인드 네이틀 6808. 6 해안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브레게는 'Race for Water'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을 후원한다. 7 'Race for Water' 대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브레게 마린 스페셜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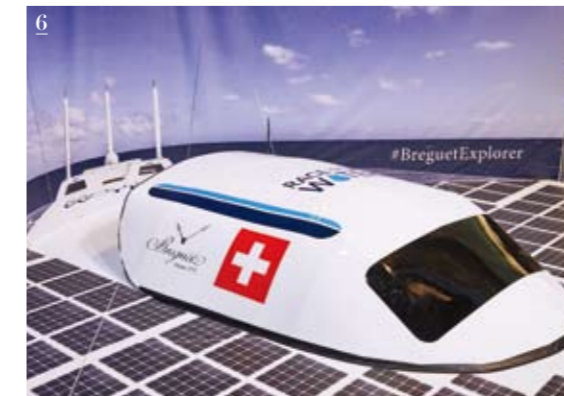
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변형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성 고객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전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죠. 이런 측면에서 지난 2년간 선보인 트래디셔널 담요는 스텔레톤 워치로, 무브먼트의 대체로운 매력을 드러내며 디자인과 기능을 함께 선사하는 여성 고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클래식 컬렉션을 포함한 다른 컬렉션에서도 여성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시계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06 시계 시장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브레게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브레게가 한국 시장에서 최근 2~3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굉장히 놀랐고 기쁩니다. 한국 소비자가 이렇게나 브레게를 좋아한다니 정말 생각했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에 맞는 전략 또한 발전시키고 노의의할 예정이니 브레게의 행보를 더욱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07 당산의 합류로 앞으로 펼쳐질 브레게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몽트 브레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인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클래식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개발인데, 워치메이킹의 정수인 컴플리케이션 워치에서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레게 창립자의 정신과 열정을 녹여낸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브레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08 브레게에 있어 바젤월드란 어떤 의미인가?** 브레게의 시계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 보석들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바젤월드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시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브레게가 원하는 바입니다.

**09 현재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마린 알람 뮤지컬 워치입니다. 모닝물은 물론 약속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직접 시계를 보여주며) 여기 GMT와 작은 홀에 표기된 중 모티브를 볼 수 있어요. 소리를 직접 들려주세요. 알람 소리 역시 굉장히 아름답죠(웃음) **에디터 권유진/바젤 현지 취재**





# Perpetual Challenge

블랑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지만, 결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통에 근거한 지속적 혁신을 피하기 때문이다. 도전을 계속해온 블랑팡은 올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빌레레 모델부터 피프티 퍼펙트 컬렉션까지, 절제된 구성과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했음은 물론이다.



## 전통과 혁신이라는 블랑팡의 DNA

블랑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계 브랜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저 전통 깊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다. 도래 혁신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기계적 시계에서 있어서 블랑팡의 가치는 남다른다. 빌레레의 중심축이자 시계업계에서 모두 인정하는 기술적인 완성도 역시 뛰어나다. 특허를 내고 현재 블랑팡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무브먼트 '카루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오토매틱 와인딩 손목시계 '1735' 모델 등을 통해 보여준 최고의 기술력과 혁신 의지는 의심이 필요 없다. 블랑팡의 시작점인 마을 이름이자 대표 컬렉션인 빌레레의 경우 절제된 우아함을 담은 시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디자인 덕에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다. 마틴 리피터, 피페추얼 캘린더에 이르기까지 마스터스 에 탑재하는 여섯 가지 기능 모두를 하나의 시계에 집약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 '1735'의 자판에서 알 수 있듯 셀 수 없이 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초 오토매틱을 적용한 마틴 리피터 손목시계, 1994년 100m 방수 가능한 2100 시계, 1996년 8월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최초의 셀프와인딩 투르비옹 시계, 201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블랑팡이 개발한 최초의 반트지 모델 디자인 위치 '피프티 퍼펙트'의 1,000m 방수 버턴 등 기록 제2차 세계대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신기술을 뽐내 온 것 과거의 제품을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꿰뚫어보고 연구해 혁신을 이뤄낸 결과물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블랑팡의 부스는 만원이었다. 시계 전문가나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모두가 호기심을 갖고 기대하는 신제품은 올해 빌레레와 피프티 퍼펙트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올해에도 역사적인 컬렉션과 혁신적인 메카니즘을 동시에 선보이며 자력을 입증해 보였음은 물론이다.

## 블랑팡의 모든 것, 빌레레의 새로운 얼굴

처음 스마트워치가 등장할 때만 해도 기계적 시계업계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스마트폰도 스마트폰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게다가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향한 남성들의 로망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대변하는 고급스러운 취향과 묵직함, 이렇듯 고집이 강하기 전하는 매력은 대체 불가능하다. 편리한 기계도 좋지만 복잡한 기계에 대한 남자들의 무조건적인 애정도 한몫했다. 블랑팡은 브랜드의 색깔을 지니면서 럭셔리한 취향을 지닌 남성

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들고 왔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빌레레 컬리드 트 캘린더 GMT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해외 출장을 떠나 현지 시간, 월, 날짜, 요일, 자국 시간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시계다. 오늘 밤 떠날 때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랑팡이 1980년대 초부터 주로 사용해온 컬리드 트 캘린더 문페이즈 기능에 2개의 시곗바늘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GMT 기능을 추가하면서 실용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 2018년판 빌레레 컬리드 트 GMT는 블랑팡의 특허 기능인 언더-라그 코렉터를 적용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이다. 라그 하단에 위치한 조정 장치를 통해 별도의 도구 없이 손가락 끝만으로 모든 캘린더와 문페이즈 기능을 세팅할 수 있다. 또 크라운을 통해 현지 시간과 자국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전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텝 세팅을 삭제했다는 점. 복잡한 속에서도 정돈된 우아함을 추구했다.

1989년 블랑팡 투르비옹을 손목시계로 최초로 구현한 브랜드가 블랑팡이라는 사실을 리마인드시키는 새로운 모델도 선보였다. 빌레레 플라잉 투르비옹 점핑 아워 레트로그레이드 마틴이다. 이름 그대로 플라잉 투르비옹에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 마틴 기능을 결합한 모델. 화려한 기능과는 정반대로 디자인은 그야말로 절제하다. 알파벳적인 투르비옹 디자인에서는 워낙 보지 않았던 시계가 가져다 투르비옹의 주요 부품을 볼 수 없지만, 플라잉 투르비옹 구조와 부품을 방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계의 매력 중 하나다. 42mm 사이즈로 레드 골드 케이스에 약아자크 스텝 액은 골드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플래티넘 버전도 관심이 있다면 20점 한 장만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빌레레 컬렉션의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은 시를 줄 못했다. 요일을 레트로그레이드 형상으로 보여주는 빌레레 그랜드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역시 그 주역 중 하나다. 라지 데이트 기능을 추가했다. 레트로그레이드 창과 빅 데이트 창을 비대칭으로 배치해 긴장감과 야망을 살렸다. 빌레레 컬렉션의 시그처인 더블 스텝 베젤, 슬림한 케이스, 정제된 핸즈와 인덱스는 그대로다. 블랑팡이 특허 받은 언더-라그 코렉터 덕분에 케이스 측면의 캘린더 세팅 다이얼이 없이 깔끔한 옆모습을 자랑한다. 요일을 감추는 코렉터를 통해 손가락으로, 날짜는 크라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 캘린더 메카니즘 조정에 별도의 투셔나 도구가 필요 없다. 2개의 메인 스프링 베젤을 갖추고 7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 6950GC가 동력을 제공한다.

## 빅 데이트의 진수, 피프티 퍼펙트

2007년 현대적인 피프티 퍼펙트가 등장한 이래 날짜 표시는 항상 4시 방향에 위치한 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빌레레에서 선보인 피프티 퍼펙트 그랜드 데이트는 6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창을 통해 날짜를 표시한다. 빅 데이트



메카니즘은 기존 빌레레 컬렉션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기능으로, 가독성이 높은 것은 물론 시계의 라그 트레인에서 추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정에 즉시 날짜를 바꾸는 것이 특징. 2018년 빌레레 에디션 데이트 기능을 추가된 뉴 모델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새로운 피프티 퍼펙트 그랜드 데이트도 이 트렌드에 동참했다. 커다란 날짜창이 6시 방향에 자리 잡았고, 날짜는 크라운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개의 메인 스프링 베젤을 갖추고 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칼리버 1315를 탑재했다. 실리온 헤어스프링 덕분에 자성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해준다. 45mm 사이즈의 새틴 피니시 처리 티타늄 케이스는 전통적인 피프티 퍼펙트의 단방향 회전 베젤을 따르며, 피프티 퍼펙트 고유의 다이얼 관련 유산을 반영해 3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문의 02-6905-3367 에디터 배미진



1 빌레레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블랑팡 부스. 2 블랑팡 부스에는 메인 위치에서부터 디자인 제작 장인들이 차례로 직접 시연을 선보인다. 3 블랑팡이 후원하는 각종 해양 탐사 및 해양 생태계 보존 관련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 외벽. 4 컬리드 트 캘린더 문페이즈 기능에 GMT 기능을 추가한 빌레레 컬리드 트 캘린더 GMT. 5 4시간 레트로그레이드 마틴 카운터 위에 위치한 빌레레 플라잉 투르비옹 점핑 아워 레트로그레이드 마틴. 6 요일을 레트로그레이드 형상으로 보여주는 빌레레 그랜드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7 6시 방향에 빅 데이트 창을 추가한 피프티 퍼펙트 그랜드 데이트.

● sponsored by BLANCPAIN 촬영 시간: 구본영(beam studio)

# Maximize Efficiency

자난해 11월, 오메가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스위스 빌레에 새로운 매뉴팩처를 오픈했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계 애호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담적인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시계 조립, 포장, 검사, 배송 등 제조 공정을 한 자판 아래서 통합 ·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 시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매뉴팩처를 소개한다.



1 스위스 연방계측기(METAS)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 품질 인증 기준인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위한 품질 · 기술 관리 프로세스가 이뤄지는 오메가 매뉴팩처. 2 스위스 빌레에 세운 오메가의 새로운 매뉴팩처 외관. 건축가 반 시게루의 작품이다. 3 시계 조립부터 포장, 검사, 배송 등이 한 지붕 아래서 이뤄지는 오메가 매뉴팩처에서 완성된 위치 컬렉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다. 4 3만여 개 박스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대형 저장고. 5 1913년 스위스 빌레 매뉴팩처에서 작업하고 있는 워터케이틀. 6 첨단 시스템과 패시브 근무 환경을 갖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끌어올린 오메가의 새로운 매뉴팩처 내부.



오메가, 더 완벽한 시계를 위한 새로운 공장을 세우다 시계업계에서 매뉴팩처는 단순한 제조 공장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브랜드 자체 시스템 아래 기획과 디자인, 부품 생산, 조립, 테스트까지 시계 제작의 A to Z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매뉴팩처라 칭한다. 매뉴팩처의 가치와 파괴력은 시계 브랜드의 성장과 그로물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커져왔다. 즉, 오늘날의 매뉴팩처는 브랜드 스스로 원하는 시계를 멋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독자적인 생산 능력,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뉴팩처를 세우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브랜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팩처의 기능이 뛰어나도록 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메가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빌레의 본사 부지에 최첨단 생산 설비를 갖춘 새로운 매뉴팩처를 오픈했다. 이 매뉴팩처는 오메가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1882년 오메가가 처음 동자를 탄 곳에 자리 잡은 건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오메가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새, 새 매뉴팩처의 진정된 가치는 효율성에 있다. 건물 내부의 5층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지려했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지적 자원을 한데 모아 제작 공정을 한층 능률적이고 간결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스위스 빌레의 또 다른 오메가 매뉴팩처에서 조립된 무브먼트(T1)를 전달받아 시계 조립(T2), 스트랩 연결(T3), 포장 및 발송(T4), 재고와 물류 관리를 포함한 모든 단계를 한 자판 아래서 작업한다. 여기에 각 단계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인력 교육 장소와 시설을 마련해 공정이 더욱 완벽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전 매뉴팩처와 달라진 점은 인간의 활동으로 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모든 작업은 100% 자동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중심부에 위치한 3층 높이에 이르는 대형 저장고에는 3만여 개 박스가 보관돼 있고,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로봇이 자동으로 픽업해 가져다준다. 이 로봇은 1초에 4m를 움직이며 직원들이 원하는 부품을 재빨리 운반한다. 물건을 옮기는 단순 작업을 부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대체하는 게 오메가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시계를 조립 라인에서 선택해 그에 따른 정확한 보증서와 인증서를 함께 매겨주는 로봇 리더 시스템(Reader System)이나, 시계의 ID 확

인아 최종 포장을 담당하는 로봇, 시계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레이저 인그레이빙 로봇 등이 그 예다.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마치 공상 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대형 저장고에는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 내부 산소 농도를 15%로 제한해 불이 붙지 않는 방화 시스템을 갖춘 정도에 맞는 첨단 시설 중 하나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 품질 인증 기준인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위한 품질 · 기술 관리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계 인증 최고 등급인 마스터 크로노미터는 오메가 일부 제품에만 하려된 등급이다. 마스터 크로노미터는 오메가 스위스 연방계측기(METAS)와 함께 인증을 받는데, 여덟 가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시계에만 부여한다. 전 세계에서 오메가만 사용하는 인증이다. 대표적인 테스트 중 하나가 MRI가 내뿜는 자성에 해당하는 1만5,000가우스(G)의 자성에 노출 시킨 뒤에도 시계 성능과 정확도가 유지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오메가가 정확성과 안정성, 항자성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메가는 지난 수년간 블랙스 다음으로 한 해 동안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 품질 인증을 가장 많이 받는 시계 브랜드였다. COSC가 무브먼트 자체만으로 테스트한다지만, METAS의 품질 인증 테스트는 완성된 시계를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메가는 COSC보다 더 엄격하고 간격하게 테스트받길 원했고, METAS와 함께 인증을 만들어 자사 제품의 완벽함과 뛰어난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빅 하이메크 스위치 그룹 최고경영자는 건물 준공식에 참석해 "오메가는 1백 년 넘게 이 위치 깊은 곳에서 시계를 만들었다. 스위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선구자다. 새 건물에서는 보다 새로운 기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시계 제조 공정을 통합 · 관리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는 오메가의 열정"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반 시게루가 완성한 오메가의 새로운 미래 오메가의 창립자 루이 브란트 & 필스가 시계 매뉴팩처 부지를 스위스 빌레의 아이보-슈미트플리 96번지로 처음 옮긴 것은 1882년이다. 이후 현재의 위치로 오르기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왔는데, 시간이 흐르며 빌레르의 가치와 기술력이 상승할수록 건물의 규모와 시설, 위치메카의 수 또한 점차 확대되었다. 오메가의 전통과 역사가 숨 쉬는 빌레르에 새로운 매뉴팩처를 오픈한 것 역시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다. 오메가는 건축 부문 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프리츠커(Fritzker)상을 받은 반 시게루에게 공감 건축을 맡겼다. 그는 (타임)에서 21세기 건축, 디자인 부문의 최고 혁신가라 칭할 정도로 전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건축가다. 프랑크 폰 퍼우 맥스 스타터부터 일본의 판자로 만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은 글로벌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같은 건축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준다. 그의 작품 중에는 나무와 유리를 스마트하게 활용한 것들도 있는데, 오메가의 매뉴팩처도 그중 하나다. 반 시게루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스위스 특유의 심플하고 깔끔한 외관 이 특징이지만, 혁신적인 실내 온도 & 에너지 통제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브랜드가 가늠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 전체에 매뉴팩처의 기능이 뛰어나도록 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메가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빌레의 본사 부지에 최첨단 생산 설비를 갖춘 새로운 매뉴팩처를 오픈했다. 이 매뉴팩처는 오메가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1882년 오메가가 처음 동자를 탄 곳에 자리 잡은 건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오메가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새, 새 매뉴팩처의 진정된 가치는 효율성에 있다. 건물 내부의 5층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지려했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지적 자원을 한데 모아 제작 공정을 한층 능률적이고 간결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스위스 빌레의 또 다른 오메가 매뉴팩처에서 조립된 무브먼트(T1)를 전달받아 시계 조립(T2), 스트랩 연결(T3), 포장 및 발송(T4), 재고와 물류 관리를 포함한 모든 단계를 한 자판 아래서 작업한다. 여기에 각 단계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인력 교육 장소와 시설을 마련해 공정이 더욱 완벽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전 매뉴팩처와 달라진 점은 인간의 활동으로 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모든 작업은 100% 자동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중심부에 위치한 3층 높이에 이르는 대형 저장고에는 3만여 개 박스가 보관돼 있고,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로봇이 자동으로 픽업해 가져다준다. 이 로봇은 1초에 4m를 움직이며 직원들이 원하는 부품을 재빨리 운반한다. 물건을 옮기는 단순 작업을 부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대체하는 게 오메가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시계를 조립 라인에서 선택해 그에 따른 정확한 보증서와 인증서를 함께 매겨주는 로봇 리더 시스템(Reader System)이나, 시계의 ID 확



# Time Master

오메가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스토리와 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 위상 덕에 오메가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그에 보답하듯 오메가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탄생 70주년을 맞은 씨마스터 기념 위치, 달의 모습을 시각화한 스피드마스터, 여성 공학에 나선 트레저 컬렉션 등 다양한 여성 컬렉션을 공개하며 브랜드 고유의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완벽한 시간을 가졌다.



### 오메가만의 스토리, 오메가만의 감성

오메가의 CEO 레이날드 에슬리만은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브랜드가 오랫동안 이어온 감성을 사는 것이다. 명품 시계를 사는 이유는 만족감과 함께 브랜드의 특별한 감성을 손목에 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오메가는 브랜드 고유의 스토리가 풍부하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국제 스포츠 대회와 공식 타임키퍼라는 점이다. 오메가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동·하계올림픽의 공식 타임키퍼로 총 29회 활동해왔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할 예정이다. 달에서 착륙한 최초의 시계라는 타이틀도 빼놓을 수 없다. 여섯 번의 달 착륙을 포함한 우주 탐사를 하고, 2백50여 년 만에 새로운 달진기를 개발하는 등 오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도 매력적인 모험에 동참해왔다.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지난 3월 1일 프랑스 파리의 패션 거리 마레 지구에 오픈한 나토 스트랩(군복으로 만든 스트랩에서 유래) 팝업 부티크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 부스 한쪽에 배치했다. 관람객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트랩을 선택하고, 이를 주요 시계와 매칭해볼 수 있게 해 생생한 체험이 가능했다.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씨마스터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복각 모델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테일을 적용한 씨마스터 다이버, 현대 여성들을 겨냥한 화려하고 우아한 컬렉션을 공개했다. 오메가가 스위스 연방계측기관(METAS)과의 공조로 마련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제도를 바탕으로 완성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탑재한 것은 물론이다. 오메가가 캘리버를 정의 내릴 새로운 칼리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오메가라는 이름 뒤의 보이지 않는 고위 감성에 포함된 것이 아닐까.

### 탄생 70주년을 맞은 씨마스터 컬렉션

오메가 씨마스터 컬렉션은 1948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다이버 시계는 외형이 일반 드레스 워치와 비슷했는데, 씨마스터는 일명 '백색'을 강화한 자체 개발 케이스에 고무 패킹을 추가해 방수 기능을 높였다. 1950년대 후반 알비스 프레스리가 군 복무 당시 착용한 사시가 훗날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씨마스터가 올해 탄생 70주년을 맞았다. 브랜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다이버 워치 라인업인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을 리뉴얼한 것도 그 때문이다. 1995년 007 영화 <골든 아이>에서 5대 제인스 본드인 배우 피어스 브로스나인이 착용해 제임스 본드 시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끈 모델이다. 그동안 몇 차례의 리뉴얼을 거친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은 올해 새롭게 전개하는 신제품을 통해 다이얼의 아이코닉한 파도 패턴을 부활시켰다. 1993년 처음 출시된 당시 모델처럼 아이코닉한 파도 패턴을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굵게 레이저 인그레이빙했다. 화이트 슈퍼 루미노버를 채운 바와 도트 형태의 인덱스 크기도 훨씬 더 커워 가독성을 높였고,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단방향 회전 베젤 인서트도 세라믹으로, 다이빙 스케일은 세라골드(Ceragold™, 오메가 고유의 골드 합금) 내지 화이트 에나멜 소재로 채웠다. 세라골드 및 에나멜 소재는 세라믹과 마찬가지로 변색되지 않아 시계의 가치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날짜창의 위치도 3시 방향이 아닌 6시 방향으로 재배치했다. 다이버 300M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하나인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는 원형이 아닌 원뿔 형태를 적용했는데,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력으로 특화를 획득했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오메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8800 칼리버를 탑재한 것도 눈

(왼쪽부터)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디자인의 파도 패턴을 재해석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은은한 화려함과 모던함으로 무장한 여성 워치 뉴 트레저 컬렉션,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에 납품했던 시계를 복각한 '씨마스터 1948 리미티드 에디션'.

● sponsored by OMEGA (영상 사진: 구본민/frames studio)



1,2 위용을 드러낸 바젤월드의 오메가 부스. 3 주얼리 장식과 워터레지팅 기술을 결합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컬렉션. 4 지난 세션이 꾸준히 발표된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모두 모은다. 이는 오메가의 자부심이다. 5 올해는 과감하게 컬러 스트랩 컬렉션을 선보였다. 6, 7 오리지널 문위치 무브먼트를 대역어인한 칼리버가 장착된 '스피드마스터 디크 사이드 오브 더 인폴로'. 8 오메가의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쇼윈도. 9 터치스크린을 통해 나토 스트랩을 교체해볼 수 있다.



에 따른다. 300m 방수, 55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 추었으며 기존 '씨마스터 다이버 300M'과 달리 시스루 케이스 백 향테라 무브먼트의 역동적인 움직임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은 25년간 사랑받은 기존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한층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해 오메가 마니아들이 가장 눈여겨볼 제품 중 하나다. 오메가를 대표하는 인기 컬렉션 '씨마스터' 탄생 70주년 기념 모델이 또 있다. 1948년 모델의 클래식 장식을 그대로 계승한 두 피스의 복각 모델 '씨마스터 1948 스물 세컨즈와 '씨마스터 1948 센트럴 세컨즈'가 그것이다. '씨마스터'는 1940년대 초 군납용 손목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 공군에 납품된 오메가의 손목시계는 당시 특한 방수 케이스와 정밀한 무브먼트로 군 장교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고, 이것을 대중화한 라인이 바로 '씨마스터'다. 해미 문장을 케이스 백에 새긴 '씨마스터'의 등장은 방수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손목시계의 유행을 선도했다. 뾰족한 인덱스와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빈티지 오메가 로고까지 거의 오리지널 그대로 재현했으며, 1948년 당시처럼 센터 세컨즈와 스물 세컨즈 두 버전으로 나란히 선보이며 오리지널 모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칼리버만큼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8804와 8806을 탑재, 21세기 칼리버로 동력을 얻는다. 직경 38mm, 두께 11.65mm 크기의 스틸 케이스에 60시간 파워 리저브, 60m 방수가 가능하다. 케이스 백에는 방수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허 받은 오메가의 잠금장치 나이트 락(Naïd Lock) 시스템을 적용했고, 탄생 70주년 로고, 영국 공군이 첫 사용한 전투기 등을 새겼다. 각 모델은 1천9백48피스 한정 생산한다. 브라운 가죽 소재의 칼레터 박스에 담겨 있어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그레이 컬러의 오픈 나토 스트랩과 가죽 스트랩, 스트랩 교체 도구까지 구성되어 더욱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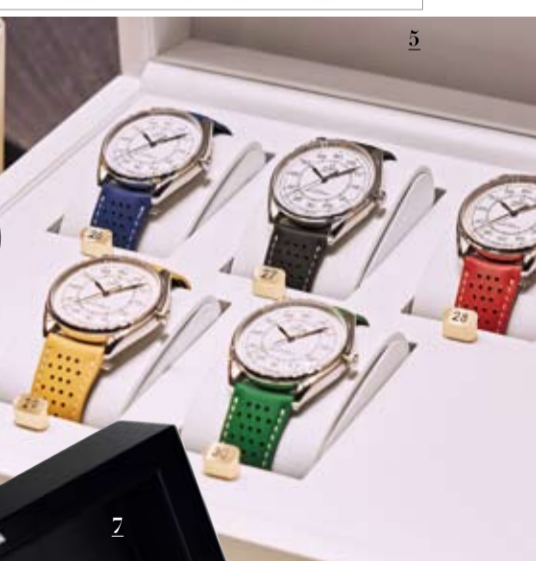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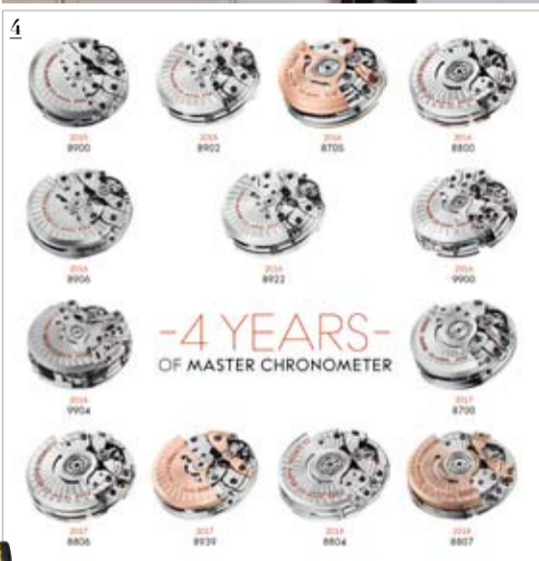
### 완전히 새로운 여성 컬렉션, 트레저

오메가는 여성 시로잡기에 나섰다. 것을 선택하듯 대중성과 우아함을 겸비한 새로운 '트레저' 컬렉션을 공개했다. 외형적으로 현대 여성의 취향을 한껏 반영한 모습이다. 과하지 않고 모던하고 반짝이며 언제 어디서나 착용할 수 있는 워치! 길게 뻗은 아르데코풍의 로만 인덱스와 곡선을 따라 패배 세팅한 다이얼, 다이얼에 포인트를 준 레드 꽃 크라운 등으로 꾸렸다. 다이얼도 블랙, 브라운, 화이트, 블루, 실버, 머더오프라퍼까지 다양하다. 39mm와 36mm, 두 가지 사이즈로 기존의 40mm보다 작아지고, 전 모델과 달리

퀵 무브먼트인 오메가 4061 칼리버를 탑재했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컬렉션은 주얼리 장식으로 화려한 변신을 꾀했다. 직경 38mm의 18K 세드나™(Sedna™, 오메가 고유의 로즈 골드 칼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골드를 이용해 미치 수를 놓듯 파된 처리한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와 레드 루비를 세팅해 화려함을 한껏 강조했다. 12개의 마진 컷 레드 루비 인덱스를 가리키는 바늘에도 세드나 골드를 사용했음은 물론이다. 이 컬렉션의 매력은 반짝이는 주얼리에 그치지 않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8807을 탑재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

### 달 착륙에 대한 경의로 빛낸 문위치

1957년 첫 번째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모델이 탄생했고, 1965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식 크로노그래프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선택했다. 1969년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달했을 때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차고 있었다.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직전에서 유일하게 오메가를 사용한다. 이런 강력한 스토리 덕분에 스피드마스터는 마니아 층이 두둑하다. 자체 탄생 60주년도 생생하게 기념했다. 올해는 한 종류의 신제품 '스피드마스터 디크 사이드 오브 더 인폴로'를 내놓았다. 케이스 전체에 블랙 세라믹(자오2)을 적용한 '스피드마스터 디크 사이드 오브 더 인폴로'는 처음으로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아닌 수동 무브먼트 칼리버 1869를 탑재했다. 브리지 일부를 마치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게 처리하고, 다이얼 역시 달의 분화구를 형상화했으며 일부는 스페이트 톤 처리해 그간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에서는 볼 수 없던 독특한 디자인을 드러내 문위치의 매력을 배가했다.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디크 사이드 오브 더 인폴로' 모델은 1968년 약 20시간에 걸쳐 달의 궤도를 10차례 회전하고 달 뒷면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돌아온 이폴로 8호의 미션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당시 이폴로 8호 캡틴인 우주 비행사 짐 로벨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 반대편에서 만나다(We'll See You on the Other Side)"를 케이스 백에 각인해 제품 출시의 의미를 더했다. 우주여행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달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 True Timepiece

바젤월드에서 유니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샤넬 워치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선보인 지 3년째다. 올해는 브랜드 역사상 세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공개했다.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로서의 단단한 내공이 응축된 결과다. 피인 워치메이커를 향한 진정성과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샤넬만의 코드를 입은 새로운 시계를 지금 공개한다.



## 진정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일구는 샤넬 워치

샤넬은 달랐다. 수백 년 역사의 정통 스위스 시계업체들과 한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J12', '보이.프렌드' 등 샤넬의 시계는 2.55백이나 N5 향수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프리미에르 까펠리아 스키텔레톤' 워치는 2017 제네바 시계그랑프리(GPHG) 여성 시계 부문을 수상했다. 시계 소재에 세라믹 바람을 일으키고, 올 블랙이나 올 화이트 등 색상 혁명을 이끈 주인공 또한 샤넬이다. 시계업계의 불황 속에서 다올, 펜디 등 일부 럭셔리 명품 패션 하우스들이 2018 바젤 월드에 불참한 가운데 샤넬은 곳곳에 자리를 지켰다. 게다가 브랜드의 세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앞세웠기에 가치는 더욱 인정받을 만하다. 2016년 브랜드 최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1'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고, 이듬해 여성용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2'를 추가하며 피인 워치메이커로서의 화려한 비상을 꿈꾼 샤넬이 진지하고 꾸준하게 시계 컬렉션을 구축해나간 결과다. 샤넬이 여타 정통 시계 브랜드와 다른 점은 아름답고, 즉 디자인을 기술력 우위에 둔다는 사실이다.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먼저 완성한 뒤,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술의 한계 때문에 디자인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샤넬 워치의 철학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유로운 창작 정신과 관행을 깬 혁신적 사고가 이루어낸 결과다. 지금껏 바젤월드는 남성 중심 제품인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여성 고객을 겨냥한 시계가 대거 등장한 것. 최근 하이엔드 시계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통 시계 브랜드들조차 여

성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샤넬은 트렌드에 따라 여성 시계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새로운 인하우스 칼리버와 시계를 개발하며 고유의 디자인 코드와 적절한 배합을 보여주는 샤넬. 2018 바젤월드의 신제품에도 그런 샤넬의 DNA가 강렬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보이.프렌드**  
과하지 않고 무심한 듯 스타일링할 수 있는 시계. 그러나 파리 방돔 광장과 전설적인 N5 향수병의 팔각형 다이얼로 샤넬의 코드를 그대로 담은 시계로, 2015년 론칭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끈 '보이.프렌드' 워치.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허무는 유니섹스 워치를 표방한 보이.프렌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샤넬은 올해 '칼리버 3'으로 명명한 새로운 인하우스 수동 스키텔레톤 무브먼트를 탑재한 '보이.프렌드 스키텔레톤' 워치를 공개했다. 베이직 골드 케이스 안으로 겹겹이 쌓인 원형 모터브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무브먼트 디자인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매혹적이다. 55시간 파워 리저브의 무브먼트는 샤넬의 인하우스 칼리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블랙 코팅 마감해 모던한 세련미를 발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역동적인 심장박동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보다 시크하게 즐기고 싶다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은 일반 베이직 골드 버전, 여성스러운 화려함을 더하고 싶다면 베젤에 총 6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을 추천한다. 크라운에 블랙 옹기스를 세팅해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한편 보이.프렌드 미디엄 사이즈는 화려한 컬러로 돌아왔다. 이미 다양한 컬러로 출시된 바 있는 '프리미에르' 워치를 떠올린다면 그리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샤넬에서 무채색이 아닌 컬러풀한 시계를 동시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보다 폭넓은 고객층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



## 샤넬 시그너처 소재를 덧입은 블랙 세라믹 코드 코코

2.55 핸드백을 꼭 어깨에 걸칠 필요가 없어졌다. '코드 코코'를 통해 손목에찰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론칭한 코드 코코는 1955년 마르모아젤 샤넬이 만든 2.55 핸드백같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가는 잠금장치가 특징이다. 첫 인상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브레이슬릿 같다. 버클을 여닫음으로써 시계를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치 시크 워치처럼 다이얼의 시간을 드러나게 했다. 은밀하게 감출 수도 있다. 지키고 싶은 나만의 시간 또는 '비밀'을 상징하는 요소다. 블랙 다이얼 위 다이아몬드는 고급스러운 에티튜드 표현이다.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블랙 세라믹 버전이 추가되었다. 블랙 세라믹은 샤넬 워치메이킹이 매우 사랑하는 소재로, J12뿐만 아니라 여러 주얼리 컬렉션에도 응용될 만큼 브랜드를 대표하는 소재 중 하나이기도 코드 코코 컬렉션과도 이질감이 매치되어 샤넬스러움을 발산한다.

## 12개의 유니크 피스로 구성된 J12 엔타이틀

2000년 새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샤넬의 대표적인 스포츠 워치 컬렉션 'J12'. 하이테크 세라믹을 케이스 전면에 도입하며 고급 시계 소재로 완성한 첫 번째 워치다. 처음에는 블랙 컬러, 2008년에는 화이트 컬러로 출시된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J12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12를 샤넬 하우스를 상징하는 숫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올해는 J12의 12에서 착안해 총 12개의 유니크 피스로 구성된 'J12 엔타이틀'을 선보였다.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 바깥에 다이얼 및 베젤을 세라믹 상감 세공으로 장식한 블랙 모티브는 1부터 12까지 숫자를 그래픽 아트처럼 형상화해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을 준다. J12 엔타이틀은 각각의 유니크 피스를 샤넬이 추후 공정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독점 판매할 예정이다.

1 샤넬의 컬러 코드인 모던한 블랙 & 화이트 콘셉트의 샤넬 부스. 2 오로지 남성을 위한 클래식한 무수드 스키텔레톤 세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3을 탑재해 한층 더 강력한 보이.프렌드 스키텔레톤 여성 워치. 3 30년 코드 코코 워치도 블랙 세라믹으로 만날 수 있다. 블랙 세라믹 특유의 매끄러운 광택, 시크한 컬러와 더불어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4 112개의 향수로 구성된 스키텔레톤을 통해 독점 판매하는 'J12 엔타이틀 워치'. 5 블루진, 코랄, 핑크 등 독특한 컬러감으로 보다 세련되고 경쾌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보이.프렌드 칼리버 스키텔레톤 워치.

## interview with Nicolas Beau

올해도 샤넬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샤넬만의 스타일리시한 코드와 창의력,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디렉터 니콜라스 보아 이들과 2018 바젤월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1 '샤넬 워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워치를 하나만 꼽는다면?'** 단 하나만 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샤넬은 단 하나의 제품 또는 컬렉션으로 대변되는 브랜드라 보다는, 각각의 제품이 자신 고유의 특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를 꼽기 보다는 각 컬렉션의 끝없는 만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죠. 먼저 샤넬이 본격적으로 워치 분야에 눈을 뜨게 한 계기는 1987년에 선보인 '프리미에르 워치' 컬렉션입니다. 작년에 탄생 30주년을 맞이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7 바젤월드에서 두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2'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까펠리아 스키텔레톤' 모티브로 한 이 무브먼트를 '프리미에르 까펠리아 스키텔레톤' 워치에 장착했고, 이는 제네바 시계그랑프리 여성 시계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도 누렸죠. 더불어 마르모아젤 프라베 컬렉션 역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어. 특히 샤넬이 자주 공명인 '르스주 하우스'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자수 디테일'의 아이디어를 샤넬만이 선보일 수 있는 마스터피스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해요.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J12는 두말할 것 없고, 보이.프렌드 워치의 경우 특히 2016년에 선보인 '트루트 버전'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코드 코코 세라믹 워치 역시 샤넬 워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 샤넬의 스토리와 스타일, 샤넬만의 코드를 담고 있어 매력적이죠. 이중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계를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단연 J12 38mm 블랙 세라믹입니다.

**Q2 미래의 신제품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샤넬의 철학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샤넬이 추구해온 방식이며,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Q3 샤넬 시계가 어떤 사람에게 퍼스트 워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샤넬 워치는 시계를 욕망의 대상이자, 아름다운 오브제로 만들고자 하는 독특한 비전을 세웠고, 이런 창조적인 정신을 담아내고자 스위스 전통에 따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샤넬 시계를 사랑 하는 사람이 되면, 시간의 흐름이 담긴 전통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현대를 관통하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저 목적인 전통을 따르려는 아름다움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대해 그 전통을 빛나게 하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샤넬 워치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Q4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하우스에서 시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스텝에서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지?** 샤넬이 향수와 뷰티, 그리고 패션이 이어 워치와 피인 주얼리를 선보였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름다운 오브제에 정인 정신을 통해 계승된 기술력을 담아내겠다는 의지



였습니다. 지난 3년간 새로운 인하우스 칼리버를 소개하며 기술력에 대한 강점을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샤넬이 자신 최상의 디자인적 요소를 워치메이킹에 접목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뛰어난 공예가들과 함께 작업할 뿐만 아니라, '까펠리아'의 신장선으로 메티에 다르(métier d'art) 하우스의 직업을 하기도 해요. 저희는 늘 미학적이면서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칼리버' 피인 워치메이킹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런 샤넬의 노력이 칼리버, 희소성, 혁신성에서 짧은 시간 안에 오래된 워치메이킹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한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5 디지털 플랫폼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프로덕트 개발에서도 디지털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검토하면 적인 것이지?** 스마트워치는 시계 제작의 새로운 정을 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분야예요. 다른 주요 시계 브랜드들처럼 우리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기회를 실패하고 있는데, 적당한 때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스마트워치는 욕망의 오브제라 보다는 수명이 짧은 스타일리시한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Q6 올해 바젤월드에서 출시한 신제품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워치는?** 샤넬의 세 번째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스키텔레톤 피인 워치메이킹 무브먼트 '칼리버 3'을 탑재한 보이.프렌드 워치를 꼽고 싶습니다. 보통 남성 시계에만 활용하던 스키텔레톤을 여성 시계에 적용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호함을 워치 있게 닮았음은 물론, 샤넬 하우스의 코드가 고스란히 담긴 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코드 코코 세라믹도 주목해야 합니다. 손목에서 빛나는 브레이슬릿이 마치 주얼리 같은 시계로, 2.55 백의 버클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죠. 이는 샤넬의 코드가 담긴 주얼리인 동시에 시계입니다. 코드 코코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샤넬의 코드를 대표하는 시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noble Elegance

섬세한 세공과 극적인 아름다움, 장인 정신의  
크기를 느낄 수 있는 여성 하이주얼리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뤼게 레인드 네이플 8906 워치 1백2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케이스에 티타늄 마더보틀 다이얼을 매치했다. 셀프와인딩 칼리버 Cal. 537 DR.L2를 장착해 가치를 더욱 높였다. **블가리 다마 파피사마 마넛 리피터** 과감한 쟁 세팅과 골드를 훌쭉한 우루시(Urushi) 레커로 장식한 다이얼이 눈을 사로잡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넛 리피터 기능이다.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 시계에서 가장 얇은 마넛 리피터 무브먼트를 담았다. **올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코스모그래프 데이트나** 유색 보석을 세팅해 레전드 컬러로 완성한 그레이트 선 베젤에 18K 에버로즈 골드의 매치가 아름답다. **샤넬 워치 18화인 주얼리 보이 프렌드 스텔레온** 워치 어린 귀도에서든 일찍이온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3년간의 개발을 거친 샤넬의 세 번째 인화 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3를 장착했다. 팔각형 베지 골드 보드에 걸맞이 레이아웃을 완성 모터가 뛰어난 메커니즘을 자랑한다. **그리프 플루빌 타임피스 컬렉션** 8시, 10시, 그리고 1시 방향에 위치한 애혹적인 꽃들이 마치 최면을 가는 듯 우아하게 회전하는 놀라운 워치. 애플 워치 페어링, 마이크로 페어링, 그리고 고도로 세밀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 등 복잡한 가장 높은 메테리 다른 기법을 사용했다. **오메가 씨파스타 이루어 타라 주얼리 워치** 파도의 불규칙한 리듬에서 영감을 받은 세 가지 다른 스틸의 수평 파도 모티프가 영동적이다. 1백1개의 다이아몬드와 12개의 마진 크 루바가 완성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에디터 베이진**

LONGINES

# Beyond Tradition

전 세계 시계 시장에서 매년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론진. 우아함, 역사, 품질로 이어온 1백86년의 전통을 가진 론진은 시계 역사의 상징인으로 대변되며 매년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타임피스를 선보인다. 올해 역시 모두를 놀라게 한 컬렉션으로 시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차가 없도록 스스로 리셋한다고 하니, 이 신비로운 모습이 궁금하다면 새벽 3시에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콘퀘스트 V.H.P. 크로노그래프는 스틸과 블랙 PVD 버전의 42mm, 44mm 사이즈로 준비되었으며, 시, 분, 초, 3시 방향의 30 분 카운터, 9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중앙의 60초 카운터 기능을 포함한다. 각 모델의 시간 조정은 스마트 크라운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2개의 개별적인 표시가 배터리 수명 이다하기 전 신호를 보내준다.

## 론진의 우아한 에티튜드를 대변하다

럭셔리 워치 하우스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클래식 워치 시장에서 월등히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론진. 한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엔트리 클래식 워치 부문을 장악할 정도로, 여기에는 론진의 변함없는 우아한 기차와 1백86년간 이어온 워치 메이킹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럭셔리 워치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론진의 클래식 워치 라인 중 레코드 컬렉션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드레스 워치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타디얼러 제품이다. 외관은 심플하지만 그 안은 복잡한 기술력을 더해 론진의 자력을 엿볼 수 있다. 론진 최초의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한 기념비적인 워치인 것. 이 무브먼트에는 시계의 정확성과 수명을 강화하기 위해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추가해 부식에 강하며 온도 변화, 자기장과 기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레코드 타임피스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원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다이얼에 'CHRONOMETER'라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승인받아 가치를 높였다. 남성용 여성용 워치 네 가지 사이즈 (26mm, 30mm, 38.5mm, 40mm)와 스틸/로즈 골드, 로즈 골드, 18K 로즈 골드 케이스 등 다양한 레퍼런스의 제품으로 출시한다. 일부 모델은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추가해 화려함을 더했다. 이와 함께 '우아함'이라는 워치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라인인 '엘레강트 컬렉션'은 올해 다이얼과 스트랩에 매혹적인 블루 컬러를 담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모든 엘레강트 시계에는 론진의 자사 독점 무브먼트를 탑재해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다.

## 탐험기를 위한 전설의 워치

론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탐험가와 스포츠 경기를 위한 워치다. 1백80여년 전부터 조종사, 다이버, 스포츠 선수들의 워치로 손꼽힌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론진은 올해에도 역사적인 타임피스를 재해석한 모델을 선보였다. 1960년대 다이빙 시계를 재구성한 '레전드 다이버' 워치는 글라스와 양방향 내부 회전 다이빙 베젤 등 그 시대의 기술을 살려주는 특징과 디자인 요소는 유지하면서, 가독성, 내구성, 그리고 실용성을 보강했다. 특히 블랙 PVD 코팅 모델은 외관으로도 시력을 유도할 정도로 강한 내구성성을 자랑한다. 300m 방수성 기능하고, 베젤은 2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으로 작동 및 조작할 수 있으며 다이빙 시간 설정 후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맨십을 어필해 반영한 '하이드로 콘퀘스트'도 눈여겨볼 것. 날개 달린 모래계 엠블럼을 새긴 이 시계는 수상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기술적 우수성과 전통적인 우아함을 가치를 둔다. 광택이 모든 스틸을 살린 세라믹 베젤이 특징이고, 다이얼과 어울리는 컬러로 변경한 스트랩은 인체 공학적인 면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해 이루어 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완벽한 시계로 재탄생했다. 문의 02-6905-3519에서 **권유진**



## 론진의 절대 강자, 마스터 컬렉션

"올해 론진의 비주얼도 신제품 중 가장 주목하는 시계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 론진의 모든 관계자가 입을 모아 '마스터 컬렉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스터 컬렉션은 2005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내 론진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며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워치다. 론진 구매 고객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마스터 컬렉션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국내 워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마스터 컬렉션 투 카운터의 경우 국내에서 '부양'이라는 귀여운 애칭이 생길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둑다. 론진의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마스터 컬렉션은 매년 새로운 기능과 함께 상급과 디자인도 더욱 파워풀해졌지만, 동시에 변함없는 클래식한 우아함을 놓치지 않으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론진을 대표하는 워치로 크게 성공했다. 그만큼 남성을 흐든 요소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클래식하고 우아한 외관만 봐도 납득이 된다. 타임리스한 디자인으로 수두에는 다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라고, 기본 모델부터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 등 다양한 버전과 소재, 스트랩으로 선보여 주얼리나 개성 있는 룩에도 이질감이 없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도 셀링 포인트다. 특히 올해는 기존 마스터 컬렉션의 시계에 애플워치까지 더해지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론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애플워치 컬린더 제품인 데다 타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니, 론진 워치 컬렉터들과 더불어 애플워치 컬린더 워치에 대한 로망이 있는 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나 다름없다. '론진 마스터 컬렉션 애플워치 컬린더'는 4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64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과 새로운 오토매틱 L897 칼리버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애플워치 컬린더는 3시 방향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는 월별 길이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동 작업 없이 30일과 31일을 구분할 수 있다. 클래식한 레퍼런스 버전과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이고, 다이얼은 깔끔한 발리코 패턴의 살바 다이얼, 스크린 샷을 드러내는 발리코 블랙 다이얼, 그리고 보다 스포티한 무드의 블루 스톤이 다이얼까지 시계로 선보인다.

## 정확성의 상징, 콘퀘스트 V.H.P.

론진 부스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며 화제가 된 시계가 또 있다. 콘퀘스트 V.H.P.다. 작년 바젤월드에서 '현존하는 쿼츠 시계 중 가장 정확한 시계'라는 자신감 넘치는 타이틀로 쿼츠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이 워치는 올해 더욱더 스마트해진 모습으로 관객을 열광케 했다. 1980년대에 첫선을 보인 후 2017년 에 이를 오마주해 출시한 콘퀘스트 V.H.P. 워치는 아날로그 시계의 높은 정밀도(±5초/년)와 함께 충격이나 자기장에 노

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간의 오차를 정확히 계산해 핸즈를 재설정하는 GPD(Gear Position Detection, 기어 위치 감출)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 시계가 충격이나 자성에 노출될 경우 알만 쿼츠 시계의 핸즈는 작동을 멈추는데, 콘퀘스트 V.H.P.는 방해 요소가 사라지는 즉시, 멈춰 있던 시간만큼 핸즈를 이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스마트한 워치가 올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해 더욱 진화했으며, 여기서 더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하다. 스마트 폰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앱으로 다른 나라나 도시의 시간대를 맞춰 시계에 블루투스로 전송하면 현재가 자동으로 움직여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 또 앱에 다음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한지에 갔을 때 크라운을 누르면 시간들이 자동으로 목적지의 시간을 맞춰준다.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계가 있을까? 콘퀘스트 V.H.P.는 마치 파부가 새벽에 재성을 하듯, 매일 새벽 3시에 뚫 난 밤은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 오

1 론진의 상징인 말 모티프를 로망틱한 회전목마로 표현해 디스플레이한 론진 부스. 2 세련된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스트랩으로 선보이는 '레코드'. 3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콘퀘스트 V.H.P.'. 4 '마스터 컬렉션' 워치와 이를 적용한 론진의 액세서리, 배우 시아먼 베이커. 5 올 블랙 PVD 코팅으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레전드 다이버' 워치. 6 강화된 세라믹 베젤이 특징인 '하이드로 콘퀘스트'.





# Historical Heritage

비젤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 상티미에(St.Imier). 이곳은 1백86년 동안 오랜 워치메이킹 역사와 노하우를 창조해온 론진이 뿌리내린 곳이자,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론진의 본부다. 론진 본사는 물론 팩토리, 뮤지엄까지 함께 자리해 말 그대로 론진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다녀왔다.

## 우아함, 역사, 그리고 품질로 이어온 1백86년

1832년 무브먼트 회사로 시작해 스위스 상티미에에서 1백86년 동안 오랜 워치메이킹 역사와 노하우를 창조해온 론진. 스위스 상티미에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론진은 이곳에서 모든 순간을 함께해왔다. 창립자 오귀스트 아카츠는 상티미에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수채(Suz) 강 우측에 인접한, 과거 지명으로 '에스 론진(St. Longines)'이라 불리는 땅을 매입해 이 지명을 딴 시계 공장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 사실 그의 목적은 그 당시 각자 집에서 작업하던 시계 장인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 시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이런 그의 판단은 맞아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론진 브랜드명의 기원이자 브랜드 역사의 시작점이다. 론진은 클래식한 전통과 우아함을 더한 품질 높은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나아가 역대 미국 박람회에서도 10개의 금메달과 28개의 은메달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금메달을 수상한 시계 브랜드는 론진이 유일하다. 1878년에는 최초로 1/15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기도 했으며, 1906년 이테네 올림픽에서는 100m 경주 공식 타임 계측기 공급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론진 시계의 명성은 이내 화제가 되어 미국의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의 대서양 단독 횡단 무착륙 비행에 위한 시계인 린드버그 아이워 앵글 워치가 탄생했고, 그 후 론진 워치는 많은 탐험가들이 사랑한 시계로 유명세를 타면서 미 해군 아카데미 소속의 캡틴 필립 반 훈 왕자에게 헌사하는 '일츠 세컨드 서빙 워치와 스위스 항공 조종사를 위해 고안한 투윈트 포이워, 전문가용 다이버 워치인 레전드 다이버' 등 론진을 대표하는 많은 역동적인 워치 컬렉션이 론진 역사에 기록을 남겼다. 이 밖에 1894년에 탄생한 초정밀 V.H.P. 쿼츠 무브먼트를 내장한 '콘퀘스트와 함께 Elegance is an Attitude(우아함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수많은 론진의 헤리티지 워치는 론진의 불멸한 가치와 우수성을 대변하는 마스터피스다.

## 세계적인 프로세스로 완성되는 마스터피스

상티미에에 위치한 론진 본사는 1832년부터 지금까지 규모를 점차 확장하며 매뉴팩처와 뮤지엄까지 한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1932년 당시 지은 최초의 론진 건물은 브랜드의 역사를 담은 뮤지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과 뒤로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다. 론진이 상티미에에서 탄생해 줄곧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계 역사를 함께한 이 역사적인 건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상티미에 마을 사람들 중 대다수가 론진에서 근무할 정도로, 론진은 상티미에 사람들에게 삶 자체이자 일상이다. 본사를 방문하기 전에 들른 레스토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가족이거나 동료, 이웃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론진 직원들은 서로를 'My People(내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1백8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가족과 같은 구성원과 함께 오로지 워치메이킹에만 전념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는 론진이 1백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 없이 그들의 철학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자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론진은 1983년에 스위스 그룹에 합류하면서 T0-T1(무브먼트)은 스위스에서 공급받고, T2(시계 조립), T3(브레이슬릿 연결), T4(발샴)과정을 인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스타일 조선일보> 팀은 그중 론진 매뉴팩처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T2 파트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재량이 좋은 새하얀 공간으로, 공장이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한자 없는 아주 깨끗한 연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공장 내부는 모두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으며 방문객은 전용 신발 커버와 헤어 캡, 팩토리 가운을 입어야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청결과 보안에 완벽하고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계를 제작하는 공장과 과정 역시 완벽함을 추구하는 론진의 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론진의 시계는 오메트릭, 쿼츠 구분 없이 정확하기로 유명하다. 오랫동안 세계 스포츠 대회의 타임키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스포츠 연맹의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듯 워치메이킹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론진의 신념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쿼츠 시계 중 가장 정확한 시계라는 론진 콘퀘스트 V.H.P.의 명성과 이 워치가 이토록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론진 매뉴팩처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백여 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는 T2 파트에서는 V.H.P.를 포함해 클래식 메카닉 무브먼트, 80%의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이곳에서 조립을 통해 완성된다. 하루에 약 6백 개의 시계를 제작하는데, 세계 조립 과정의 99%가 오직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매뉴팩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워치메이커들의 작업대마다 놓인 조립 매뉴얼이다. 론진은 일관된 조립 매뉴얼과 체계화한 작업 순서표를 바탕으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론진에서 생산한 모든 시계는 일관된 정확성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단계별로 한 팀당 1명의 프로덕트 매니저와 1~2명의 워치메이커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마다 워치메이커가 지속적으로 퀄리티를 체크한다. 아주 작은 핸즈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수백 가지에 달하는 과정마다 일일이 사람이 퀄리티를 체크하면서 론진의 시계는 더욱 정교하고 정확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립을 끝낸 시계는 특수 기계를 통해 퀄리티를 한번 더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24시간 동안 시계에 물, 온도, 압력 등 각종 충격을 가한 후 V.H.P.의 경우에는 ±1초의 오차를, 다른 론진 워치의 경우에는 ±1분의 오차를 체크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 이처럼 완벽한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론진의 끝없는 집념은 론진 시계에 늘 따라붙는 가장 정확한, 가장 완벽하리라는 자신감 넘치는 수식어를 수증하게 만든다.



## 생동하는 론진의 역사를 담다. 론진 뮤지엄

1832년에 지은 첫 번째 론진 공장 건물은 역사적인 의미를 실려 현재 론진의 역사적인 타임피스와 기록물을 담은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2년에 오픈해 일반인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이 뮤지엄은 총 네 가지 테마로 큐레이팅해 론진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오래된 뮤지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주하는 '워치메이킹 히스토리 룸'에서는 1867년에 만든 론진의 첫 번째 시계부터 1957년 플래그십 워치, 1984년 V.H.P. 워치, 1960년 레일로드 워치, 그리고 다양한 포켓 워치까지, 론진 워치의 모티브가 되고 영감을 주는 다양한 워치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빨간색 커버를 단 책이 빼곡히 꽂혀 있는 공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 책에는 놀랍게도 1867년부터 1969년까지 제작된 론진 워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8백여 개에 달하는 기록으로, 시계를 언제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 판매되었는지는 물론 워치 시리얼 넘버까지 수기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 그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함께 두 번째 테마인 '어드벤처 룸'에서는 대서양 단독 횡단 무착륙 비행에 성공한 미국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 미 해군 아카데미 소속의 캡틴 필립 반 훈 왕츠,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 여성 비행사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 여류 비행사 아델라아 에어하트 등 많은 탐험가와 함께하는 론진 워치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해도 고인이 아닌 론진 워치의 위상은 이들이 남긴 일지가 뒷받침한다. "우리가 기록적인 비행을 하는 동안 론진 워치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동했다. 나는 이 워치의 정확성을 신뢰한다." 조종사 루셀 보드먼(1930년 미국에서부터 이스타블까지 무착륙 비행), "나는 그라프 체펠린(독일 항공모함)의 세계 일주 항해를 위해 론진 시계를 착용했는데, 항해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이 바로 론진 시계였다." 한스 본 슬러(1929년, 그라프 체펠린의 핵심 선원) 이런 론진의 명성은 1878년 이래 스포츠 분야까지 이어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고우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뮤지엄의 세 번째 테마인 '스포츠맨 심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론진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부터 테니스, 스키, 모터 레이스 등은 물론 올림픽 경기에서의 활약까지, 대방문의 스포츠와 관계가 깊은 론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878년 아메리칸 레이시 코스에서 사용한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20H, 1954년 선보인 최초의 쿼츠 시계 장미인 크로노노네진스(결혼선)를 지는 순간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1/100초 단위로 기록) 등의 발명품은 스포츠 역사에 론진의 이름을 확실하게 새겨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마의 룸은 그간의 광고 비주얼과 함께 론진을 대표하는 앰배서더와 그의 워치를 전시한 '엘레강스 룸'이다. 론진은 'Elegance is an Attitude'라는 슬로건을 철학으로 이를 대변하는 앰배서더의 활동 또한 활발히 했다. 여성 테니스계의 아이콘인 스테파니 그라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로 꼽히는 안드레 애거시, 지금까지도 론진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 중인 배우 케이트 윈슬렛과 사이먼 베이커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론진의 글로벌 앰배서더는 론진의 철학과 가치를 전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인 스토리를 지닌 론진은 보석과도 같은 무부환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론진 뮤지엄은 론진 홈페이지(www.longines.com/company/museum/virtual-visit)를 통해서도 가상 투어를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에디터 권유진(바람 한지 취재)



1 1867년부터 1969년까지 제작된 론진 워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기로 기록해 보관 중인 워치메이킹 히스토리 룸. 2 론진의 화려함보다 가치와 철학에 골려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는 론진의 글로벌 모델들. 유자현의 네 번째 테마인 '엘레강스 룸'에서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 3월, <스타일 조선일보> 팀이 방문한 날 촬영한 론진 본사 모습.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해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했다. 4 1915년 론진의 광고 비주얼. 5 1950년에 촬영한 론진 본사 건물 모습. 현재 사진과 비교해볼 것. 6 론진 워치와 탐험가들의 깊은 인연을 소개한 '어드벤처 룸'. 7, 9 론진도 올림픽을 포함해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활약하며 정확한 시간 측정과 기록을 통해 명성을 널리 알렸다. 8 날개가 달린 모리스기로 표현한 론진의 과거 로고를 소개한 책자. 10 1927년에 미국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를 위해 제작된 워치.

## LONGINES Chronology

1832 오귀스트 아카츠가 시계 공장 인수

1866 세계 박람회에서 10개의 금메달 수상

1867 최초의 포켓 크로노그래프 제작

1878 뉴욕 경마장에서 론진 크로노그래프 사용

1881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최초의 손목시계 출시

1890

1896 이테네 올림픽 100m 경주 공식 타임 계측기로 선정

1913

1920

1979

1983

2001 1천만 번째 시계 생산

2005

2006 바젤월드에서 아인슈타인 포켓 워치 전시

2008 아인슈타인의 소장품 론진 시계가 뉴욕 경마에서 59년 6달 24일에 판매됨

2018 론진 창립 1백86주년

# Master of Ceramics

타 브랜드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다루는 기술력을 보유한 라도. "혁신이 멈추면 그 브랜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라도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의 사명에 따라,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 중인 라도의 현재와 미래를 2018 바젤월드에서 확인했다.



## 하이테크 세라믹의 강자, 라도

라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다. 지금은 세라믹을 타 브랜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라도는 1986년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시계에 최초로 적용한 브랜드로, 세라믹 소재 관련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까지 라도의 시계 컬렉션 주 소재로 사용하는 세라믹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스크래치에 강하고 가벼우며 사용하는 이의 체온에 온도가 맞춰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생체 친화적 소재로, 금속성 없어도 강한 내구성을 한다는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강성 때문에 변형하기 어려운 것도 세라믹 소재의 특징이다, 세라믹을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다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라도는 '상상할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라는 브랜드의 오랜 철학에 맞서 2004년 지구상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광물인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경도의 세계 최초 하이테크 다이아몬드를 소개한 데 이어, 2011년 하이테크 세라믹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세라모스 소재를 개발하며 오늘날까지 개척자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컬러도 자유자재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인, 세계적인 트렌드 예측 전문가 리타미에 밀루르트의 작업한 '시간의 초상(Portrait of Time)' 컬렉션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린, 블루, 브라운 등 이전에 화이트와 블랙으로 정이되었던 세라믹 워치의 컬러 팔레트를 넓힌 것. 이번에도 가장 눈에 띄는 컬렉션은 다이얼부터 케이스, 스트랩까지 선명한 그린 컬러의 웃을 담은 '트루 선란인 네이처 컬렉션'이다.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담겠다는 이 워치는 이탈리아 정원의 풍부한 유산을 홍보하는 거대한 그린디 자르디니 이탈리아니(Grandi Giardini Italiani)와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점차 도시화된 삶에서 활기찬 자연의 색깔을 마음속 안장시켜 해주는 만큼, 그와 동일한 컬러의 시계를 착용했을 때에도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라도는 자연의 세계를 구성하는 최고의 요소를 선택하고 이 요소의 미학적인 면을 최신 트루 선란인 모델에 결합했다. 그리하여 자연의 요소인 흙(earth)의 리치한 토프 브라운, 물(water)의 딥 미드나잇 블루, 나무 잎사귀(leaf)의 신록이 가득한 그린 컬러를 입힌 한층 클래식한 트루 선란인 네이처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사실, 라도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급 기술력 없이 하이테크 세라믹에 자연의 컬러를 재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컬렉션은 단순히 세라믹 소재 케이스와 스트랩에 컬러를 입힌 게 아니다. 물을 떠올리게 하는 블루 컬러 다이얼은 머더오브펠 소재에 컬러를 입혀 대연의 밀물과 썰물을 표현했으며, 메탈 코팅을 내세워 빛이 아름답게 굴절하도록 하고, 잎사귀는 밝은 곳에서

천천히게 이르기에는 얇막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그린 머더오브펠을 사용하는 등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는 라도가 어떤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타임피스로, 평온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비주얼인 만큼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은 물론 정확성까지 갖춘 라도의 2018 워치 컬렉션

세라믹을 다루는 라도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라

1 오젯 디자인의 균형이 돋보이는 라도 뉴다이아스터, 2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트루 선란인 네이처 컬렉션을 기념해 초록 잎사귀로 뒤덮인 라도 부스, 3 브라운 컬러 다이얼에 에칭된 브라운 레더 스트랩을 매한 라도 하이퍼블록 울트라라이트 브라운, 4, 5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잎사귀의 그린 컬러를 재현한 라도 트루 선란인 네이처 컬렉션 리피드 모델 버전, 6 시계 케이스부터 인텍스, 날짜와 요일을 표시해주는 창까지 사각형으로 통일한 '트래디션 1965 오토', 7 다이아스터 스물 세컨드 오토매틱 COSC 컬렉션.



도의 신제품을 소개한다. 먼저 2개의 다이얼이 겹쳐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뉴 다이아스터 워치는 독특한 멀티 레벨 다이얼을 장착해 시간, 분, 초 및 날짜 요소를 교차하는 원을 이용해 나타내는데,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7시 방향에는 초침이, 다이얼 상단부에는 시침 및 분침이 자리 잡았으며, 10시 방향에서 2가로 이어지는 곳에는 수평선을 연상시키는 바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다이얼의 투명한 경계선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어지게끔 디자인한 것. 또 투명한 다이얼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무브먼트의 움직임으로 고유의 매력을 부각했다.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한 43mm 모노블록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는 올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며, 남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운 모두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라도가 추구하는 가벼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초경량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해 시계의 총 무게가 56g에 불과한 '하이퍼블록 울트라 라이트'의 새로운 모습에도 주목해보자. 앞서 설명한 자연의 색에서 영감을 받은, 흙에서 비롯된 톤인 브라운과 브라운 색상의 모델로 선보였으며, 19세기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브라운 선레이 하이테크 세라믹 다이얼을 장착해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한 외관을 선사한다. 여기에 브라운 버전은 스포티 룩의 나토 스트랩을, 브라운 버전은 에이징된 브라운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현대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소재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예를 보여주었다. 라도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컬렉션, 라도 '트래디션 1965 오토'는 1960년대 클래식을 돌아보며 그 시대의 디자인과 현대적인 소재를 결합해 완성했다. 시계 케이스에서는 보기 드문, 가로로 긴 사각형 케이스에 인텍스와 요일, 날짜창까지 모두 사각형으로 디자인한 유니크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특징.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두 가지 M 사이즈 버전과 함께 실버 다이얼에 코닉스 레더 스트랩 버전은 XL 모델을 그대로 재현, 1천9백66개 한정 생산된다. 마지막으로 '다이아스터 스물 세컨드 오토매틱 COSC'는 시계의 일차적인 의무인 정확성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스위스 메이드 타임피스 중 약 6%에만 부여될 정도로 취득하기 힘든 COSC 인증을 받은 워치이기 때문이다. 43mm 사이즈의 심플한 외관에 가죽 프러프링으로 마감 처리한 이 타임피스는 워치 마니아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시계일 것이 틀림없다. 문의 02-2143-1825 에디터 이자현



# Pride on the Wrist

1백여년 전 첫 번째 페어에서 1번 부스를 차지했던 티쏘. 1백6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실현해왔다. 하이엔드 기술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두터운 마니아층을 거느린 티쏘는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결합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의 자존심을 손목 위에 담았다.



## 기능과 가격을 만족시키는 유니섹스 워치

1백65년의 전통을 지닌 티쏘는 금속의 가치를 은(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세계 최대 시계 회사인 스위치 그룹 소속으로 오행과 인드도 면에서 업계 선두로 꼽히고, 스위스 메이드의 하이 퀄리티를 갖추었지만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 덕분에 전 세계에서 티쏘를 찾는 남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 세계 1백60개국에 1만3천여 개 매장을 갖추어, 스위스 전통 시계 브랜드 가운데 판매량 부문에 오를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다이얼이나 마러몬,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들의 손목에는 어김없이 티쏘의 시계가 채워져 있다. 도하·부산·인천 아시안게임의 공식 타임키퍼 또한 티쏘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지

금처럼 대중화되기 전인 1999년에 이미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계를 내놓기도 했다. 티쏘의 기술력과 정밀성이 어느 브랜드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티쏘는 일상에서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워치부터 럭셔리 무드를 가미한 골드 라인, 트랜디한 디테일을 다룬 클래식 라인, 정교함과 혁신성을 갖춘 스포츠 라인, 우아함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여성 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을 고루 갖추고 있다. 어떤 라이프스타일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정장이다.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주목해야 할 신제품은 슈망 데 무랄의 새로운 모델이다. 1907년 티쏘 공장을 세운 스위스 르 로콜의 거대 이름을 받들어 명명된 모델로, 올해 바젤월드의 트렌드 컬러로 주목될 블루 버전이 돋보인다. 블루 다이얼과 스트랩에 심플한 로마숫자 인텍스 등이 어우러진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인 도시 남성이라면 탐낼 만한 모습이다. 57mm 방수가 가능하며, 80시간 파워 리저브의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브라운과 블루 버전,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외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42mm, 32mm 사이즈로 선보인다.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선호하는 이라고 해도 아쉬워할 필요 없다. 크로노그래프 버전 또한 준비되어 있다.

자연에 공개한 티쏘 발라드는 새로운 로즈 골드 컬러 버전을 추가했다. 로즈 컬러를 선호하는 아시아 커플을 겨냥한 제품이다. 결혼을 앞둔 커플의 예로 로드 그린인 '티쏘 발라드'는 이브닝 웨어는 물론 캐주얼 데님 룩에 매치해 세련미를 발산하기도 하고도 그만이다. 디자인으로만 판단하면 이쁘다.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해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한 모델이라는 점은 시계의 가치를 배가한다.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은 시계의 부식과 외부 충격 방지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무사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하이엔드 럭셔리 워치 브랜드에서나 사용했다. 티쏘는 지난해 브랜드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해 티쏘 발라드에 적용했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모델로,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COSC 인증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했다. 57mm 방수가 가능한 모델로, 남성과 여성 사이즈로 나누어 선보인다. 티쏘가 어떻게 국제 크로노미터 대회에서 꾸준히 상을 수상하고 스위스 시계 산업에서 호평받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이다. 데일리 워치는 파워 리저브가 갈수록 좋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계를 갈아주는 것이 생 각보다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계의 파워 리저브가 42~48시간 데 반해 티쏘 에브리타임 스위스메틱은 3일 이상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포멀 룩에도 걸맞은 공감을 이루지만, 편안한 캐주얼 룩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어떤 데일리 룩,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 자연스럽게 연출 가능한 '에브리타임'이라는 이름이 넘침 없이 적절하다. 40mm 다이얼 사이즈로 37mm 방수가 가능하며 스틸 브레이슬릿, 레더 스트랩, 패브릭 스트랩 버전 등 고를 수 있다.



1, 4 티쏘의 역사를 담은 티쏘 수장 대 무랄의 블루 다이얼 버전, 2 3일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데일리 워치 티쏘 에브리타임 스위스메틱 광고 비주얼, 3 바젤월드 내 티쏘 전시 부스 모습, 5 스포츠 티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부스 한쪽에 마련한 이미지 월, 6, 7 올해 로즈 골드 바이 컬러 버전을 추가한 티쏘 발라드, 8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다이버 워치, 티쏘 씨스타 1000 젠트 오토매틱, 9 모터 바이크 레이스 MotoGP™와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티쏘 티-레이스 MotoGP™ 리미티드 에디션 2018.



6

## 마니아를 자극하는 스포츠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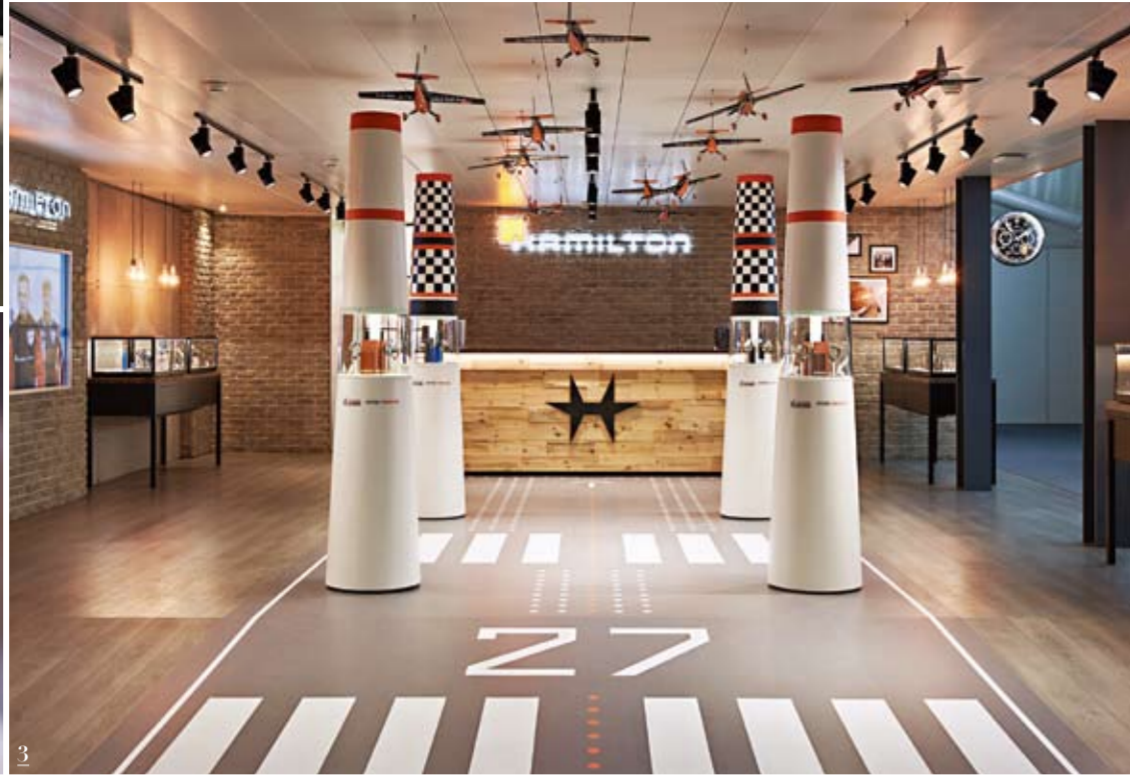
티쏘의 강력한 마니아 그룹은 워니 워니 해도 스포츠 애호가다. 혹독한 환경을 버티는 내구성과 더불어 편의성, 유용성은 물론 디자인이나 컬러 등 스타일에도 민감한, 말 그대로 까다로운 고객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티쏘 제품이어야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 나열하는 것보다 확실한 표현은 바로 구입하는 행위 자체다. '스위스 메이드' 꼬리표를 단 브랜드 중 판매 개수로는 랭킹 톱에 속한다. 그 영광적인 자리에 호응하던 티쏘는 올해 보다 강력해진 다이버 워치를 내놓았다. 티쏘 씨스타 1000 젠트 오토매틱이 그 주인공이다. 1분마다 표시되며 이후부터는 5분마다 표시되는 눈금,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방수 능력을 과시하는 스크로 다운 케이스와 크라운, 최대 30배(1,000ft) 입력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야광 핸즈 초침에 야광 점을 더해 가독성 또한 더욱 높였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빈시계 방향 세라믹 회전 베젤로 구성했다. 다크 블루 그레디이션 다이얼로 깊고 푸르른 심해를 담 아낸 이 시계의 사이즈는 43mm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스포츠 워치는 '티쏘 티-레이스 MotoGP™ 리미티드 에디션 2018'이다. 'MotoGP™'는 모터사이클계의 F1에 해당하는 경기로, 티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otoGP™와 티쏘의 메인 컬러인 블랙에 레드와 골드 컬러를 더해 남성적인 강인함과 오라를 물씬 풍긴다. 모터 바이크 팬을 가장 설레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케이스 뒷면에 프린트된 'MotoGP™' 공식 로고일 것이다. 8천8백88점만 한정 제작된 이 시계의 유니크한 가치를 가장 빠르게 확인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계의 디자인은 모터 바이크의 프레임과 부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이팬에 표시된 'start and go' 문구가 푸시 버튼에 인그레이빙되어 있고, 다이얼 또한 모터 바이크 타이어의 트레이드마크에서 영감을 따왔다. 모터 바이크 팬들에게는 손목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질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다. 문의 02-543-7685 에디터 권유진





## HAMILTON



# Great Explorer

해밀턴이 올해로 파일럿 워치 제작 1백 주년을 맞았다. 항공 모험가로 꾸민 부스 디자인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듯, 한 세기에 걸쳐 펼쳐온 항공 분야의 혁신이 오롯이 담긴 리미티드 에디션은 선보이며 이를 자축했고, 1940년대 군용 시계 복각 모델로 시계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미국 시계의 신중인인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라는 차별화된 유산이 올해에도 빛을 발했다.

### 육·해·공군을 위한 카키 컬렉션

해밀턴의 시계는 다르다. 대담하고 자유로운 미국적 감성과 기술력, 정확성을 내세우는 스위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 두 문화의 DNA가 완벽하게 융화된 시계를 내놓는다.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에서 문을 연 해밀턴은 미군에 양장난 양의 시계를 공급했다.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를 위한 특별한 시계도 제작해왔다. 1977년 스위스 회사에 인수되어 현재 스위치 그룹에 소속되었지만, 자신의 뿌리인 미국적 감성과 가치를 시계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해밀턴은 브랜드 초창기부터 항공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1918년 워싱턴과 뉴욕을 오가는 항공우편 서비스의 미국 최초 공식 타임키퍼였으며, 1926년 북극 상공을 지는 역사적인 비행의 시간을 측정하는 브랜드였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공군 비행 중대, 레드 볼 에어쇼 팀의 파일럿 시계로 자리 잡으며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왔다. 대한민국 공군도 해밀턴의 시계를 차고 하늘을 가른다. 2018년은 해밀턴의 첫 파일럿 워치 출시 1백 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1천백18개 한정판 '카키 X-윈드 오토 크로노'를 이를 자축했다. 종종 계산기를 잡았듯이 정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종종이 나 출장을 떠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무드도 무장했지만, 소재나 마감은 현대적이다. 클래식한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판을 연상시키는 12시 방향의 오일 디스플레이, 미공군 파일럿들이 입던 가죽 항공 재킷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목격한 가죽 스트랩, 다크 브라운 컬러로 PVD 코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등이 그것이다. 해밀턴은 파일럿 워치와 함께 밀리터리 시계 제작에도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키 컬렉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카키 필드 메카니컬 38mm는 1940년대 군용 시계로 제작한 카키 필드의 오리지널 모델의 복각 워치라는 점에

연행과 이치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다. 무브먼트 역시 달라졌다. 실리시움 헤이스프링을 적용했는데, 실리시움은 실리콘을 가공한 신소재로, 기계식 시계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변형이 심하지 않고 훼손이 덜 되는 장점이 있어 헤이스프링의 소재로 제작이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인데,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덕에 파일럿 워치를 고품하는 요인인 자부류의 영향을 완화하는 내자성이 향상되었고, 무브먼트 내구성이 높아져 외부 충격과 오염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같은 스위치 그룹에 속한 ETA사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7750을 베이스로 만든 무브먼트 H-21-S를 장착했는데, 해밀턴에서는 드물게 COSC 인증을 받아 정확성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땀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카키 컬렉션은 카키 파일럿 오토 데이 데이트의 뉴 모델이다. 기존보다 한층 길어진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H-4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해 시계가 멈추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말 여행이나 출장을 떠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무드도 무장했지만, 소재나 마감은 현대적이다. 클래식한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판을 연상시키는 12시 방향의 오일 디스플레이, 미공군 파일럿들이 입던 가죽 항공 재킷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목격한 가죽 스트랩, 다크 브라운 컬러로 PVD 코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등이 그것이다. 해밀턴은 파일럿 워치와 함께 밀리터리 시계 제작에도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키 컬렉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카키 필드 메카니컬 38mm는 1940년대 군용 시계로 제작한 카키 필드의 오리지널 모델의 복각 워치라는 점에

1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카키 파일럿 오토 데이 데이트, 2.4천 파일럿 워치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하는 189백18점 한정판으로, 비행기 계기판을 본뜬 카운터 디자인인 메카니컬 45mm 사이즈의 카키 X-윈드 오토 크로노, 3월주로 물러와와 천장의 비행기 항공 워치 제작 1백 주년을 알린 해밀턴 부스, 5항공 워치 제작 1백 주년을 기념하는 광고 비주얼, 6특별한 도구 없이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재즈마스터 샌란인 오토매틱, 7카키 필드의 오리지널 모델을 복각한 카키 필드 메카니컬 38mm, 8 파우더 컬러 다이얼에 4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세팅한 재즈마스터 뷰메리 레이다.



서 워치 마니아들을 자극한다. 필드 워치는 본래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보병을 위한 시계를 뜻한다. 해밀턴 군용 시계의 기본이 되는 카키 컬렉션은 본래 육군 병사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대량생산되었다. 자신의 격렬한 전투에 건디기 위해 내구성이 중시되었고, 단순하고 투박한 구조가 특징이었다. 그 특유의 멋이 드러나는 밀리터리 콘셉트의 시계가 바로 카키 필드 라인이다. 해밀턴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지만, 근래에는 오리지널에 근접한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다. 이번 카키 필드 메카니컬은 매일 갈아서 사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동 무브먼트에 오리지널 데일이를 따랐다. 여기에 나토 스트랩을 기본으로 매치했다. 케이스 지름이 38mm로, 투박하게 느껴지는 케이스 기둥 또한 오리지널을 향한 의지다. 이번에 브라운 다이얼을 추가했고,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게 50m 방수가 가능하며 크라운을 닫으면 스톱 세컨즈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비젤월드를 통해 공개된 2018 카키 컬렉션은 기계식 시계 입문자는 물론 마니아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 재즈의 선율을 담은 스타일, 재즈마스터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 재즈에서 착안해 이름 붙인 재즈마스터 컬렉션. 재즈의 선율을 담은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다. '재즈마스터 샌란인 오토매틱은 패셔너블한 드레스 워치를 자랑하는 동시에 이름 그대로 알은 두께를 자랑한다. 초창을 떼어냈기 때문에 두께를 좀 더 줄일 수 있었고, 최대한 얇게 만든 케이스와 어우러져 대중적인 기계식 시계 중에서는 재빠른 착용감을 민낫할 수 있다. 올해 선보인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패션성이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 컬러를 자유롭게 바꿔 착용할 수 있게 만든 것. 도구를 사용하거나 끈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두어도 좋다. 간편 클리 시스템 덕에 부드러운 송이자가족 스트랩을 번하고 교체하는 건 일도 아니다. 다양한 컬러 스트랩을 구비하고 있었던 기본이나 의상에 따라, 또는 TPO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즐거움이 절로 따라온다. 슬레이트, 브론즈, 미드나잇 블루, 화이트 심메인 등 다이얼 컬러를 먼저 고르고 그에 어울리는 스트랩 컬러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일링의 한 파트이자 줄일 수 있는 도구를 콘셉트로 하지만,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토매틱 무브먼트 ETA 2892-A2를 탑재했다. 재즈마스터 레이다는 라벤다와 화이트, 스카이 블루의 파우더 컬러 다이얼에 4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세팅한 재즈마스터 뷰메리 레이다와 오픈 워크 차린 패일 핑크 다이얼을 통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 36mm 사이즈의 재즈마스터 스칼렛 레이다로 출시한다. 오픈워치의 세이프가 꽃잎을 연상시키는 다이얼은 기계식 시계의 매력에 이는 여성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문의 02-3149-9593 에디션 리뷰

## MIDO

# Perfect Timing

1918년 출범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1백 번째 생일을 맞았다. 과거의 아이코닉한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한 리미티드 워치로 브랜드의 역사를 강조했고, 창립 1백 주년을 기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시계 애호가들의 수집욕을 자극했다. 브랜드의 디자인 모티브인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신제품은 미도만의 DNA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 미도의 아이코닉 디자인, 커맨더 빅 데이트

1918년 스위스 취리히의 르 로콜에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 미도, YoMido(나는 축장이다)라는 뜻을 지닌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브랜드명을 바탕으로 방수 시스템과 오토매틱 무브먼트, 항자성 시계 개발에 앞장섰다. 2000년대부터는 역사적인 건축 아이콘에서 받은 영감을 시계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 타인리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1백30만 명 이상의 회원들 둔 국제건축가협회(UA)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미학, 진정성, 기능성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일관되게 펼쳐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시계를 생산해온 미도가 올해 창립 1백 주년을 맞았다. 비젤월드의 관망각과 프레스가 일찌미미도의 탄생 1백주년 기념 워치를 공금해냈던 것도 사실이다. 커맨더 빅 데이트는 지난 1월 상하이에서 열린 창립 1백주년 기념 모델 론칭 행사를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데는 커맨더 모델이 미도의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도의 초창기 커맨더가 브랜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였다. 1959년 론칭한 이후 디자인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담고 있기에 창립 1백주년 기념 모델로 채택되었던 것.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커맨더 빅 데이트는 이름 그대로 디지털 방식의 빅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특징이다. 지름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탑재된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파워매틱 80을 베이스로 한 ETA C07.651인 만큼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으로 넉넉하다.

### 미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바론첼리

미도는 브랜드의 시작인 1918년과 현재인 2018년, 1백년 뒤인 2118년을 테마로 삼은 바론첼리 트릴로지 리미티드 에디션은 선보였다. 렌 오페라하우스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모델로, 골드 PVD 케이스가 1918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2018년, 블랙 PVD로 표면을 덮은 케이스가 2118년을 상징하며 미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각각 가죽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최첨단 패브릭 소재인 코듀라 스트랩을 사용해 테마를 한 번 더 부각했다. 과거와 현재 모델에는 아이보리 다이얼에 12시 인덱스를 로마숫자로 표현하고, 블루 컬러 스텐 세컨즈를 배치한 반면, 미래 모델에는 샌라이 패턴의 짙은 회색 다이얼에 로마 인덱스를 배치하고 빨간색 스텐 세컨즈로 마무리했다. 기능은 세 모델 전부 동일하다. 스텐 세컨즈와 데이트 윈도우를 클래식



이 한 쌍의 워치는 로즈 PVD로 코팅 차린 스틸 케이스로 이루어졌으며 창립 연도에 해당하는 1천9백18개 한정 제작했다. 투명 케이스 백을 통해 고동치는 무브먼트의 생생한 움직임과 미도 로고를 확인 할 수 있다.

### 현대 남성의 두 가지 취향을 반영한 멀티포트

1934년 선보인 멀티포트는 최초로 방수와 충격 저항 직인인 설프오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한 인터마그네틱 워치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도의 베스트셀러로 위상을 뽐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던하고 깔끔한 케이스 형태를 잡아지며 현재에 이르렀다.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영감을 얻은 멀티포트 GMT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젊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워치다. 2개의 시계 지를 동시에 표시하는 GMT 기능을 발휘해 출장이나 여행에서 유용하다. 로즈 골드 PVD 코팅한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의 대조적 컬러 매치에서 현대 남성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2개의 크라운과 과감한 재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의 다이얼이 특징으로, 2개의 크라운 중 하나는 보통의 시계처럼 와인딩, 날짜, 시간 조정용이며 다른 하나는 24시간 링을 회전시키는 용도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로즈 골드 PVD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ETA 칼리버 2893-2를 베이스로 한 미도의 칼리버 1193을 탑재했다.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최근 2~3년 동안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북극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멀티포트 다트미터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런 관심에 부응하는 모델이다. 1939년 처음 출시된 멀티포트 다트미터 인디케이터를 재현한 시계이며, 한정판이다. 미도 창립 1백 주년을 기념해 1천9백18점 한정 제작한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시계에서 꺼낸 시계처럼 빈티지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난다. 파워터를 사용해 데이트를 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름인 다트미터는 정교하게 세진 초 인덱스나 예스라온 리그 디자인으로 과거에서 온 모델임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초소형 모양의 레드 칼리 포인트가 한 칸씩 움직여 날짜를 표시하는 이 시계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무브먼트, 파워매틱 80을 탑재했다. 레트로 스타일에 관심이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북극 모델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2-3149-9599 에디션 리뷰







# New American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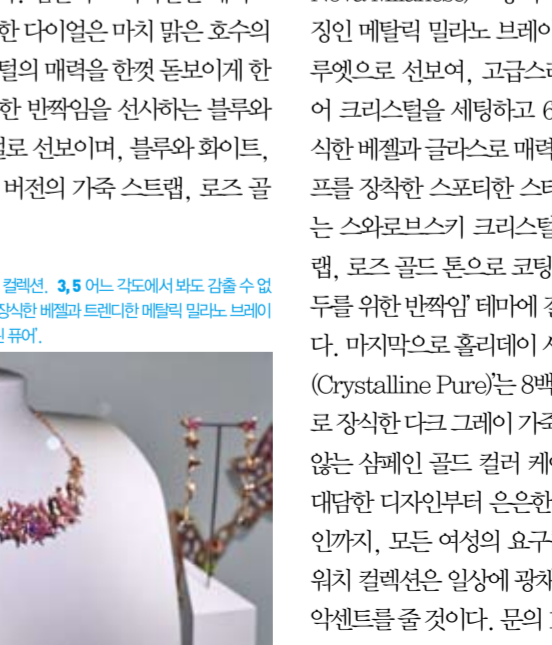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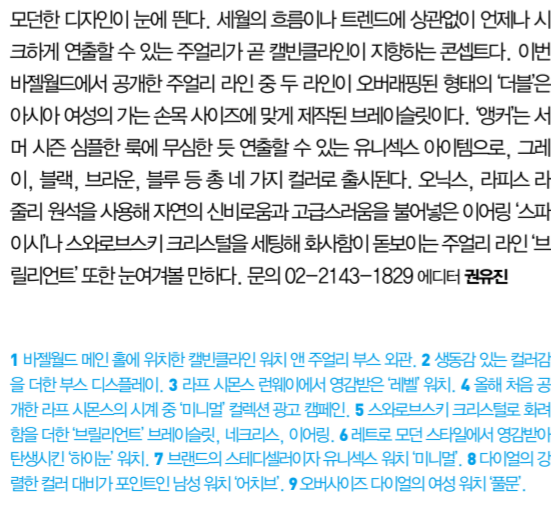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큰 변화와 재미를 보여준 브랜드는 단연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채색으로 일관하던 부스 곳곳에 생동감 있는 컬러를 더하고, 직원 유니폼 역시 칼빈클라인의 데님 룩으로 바뀌었다. 이는 결코 작지 않은 변화다. 이는 작년부터 칼빈클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라프 시몬스의 터치가 가미된 것으로, 올해 그의 첫 시계를 바젤월드에서 공개했다. 스위스 메이드의 전통을 따르면서 아메리칸 감성의 미니멀리즘으로 무장한, 라프 시몬스가 정의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의 첫 번째 워치 컬렉션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는 패션성이 강하고 심플하며 미니멀하다. 상대방이 찬 시계가 칼빈클라인 워치인지 아닌지 단숨에 알아볼 수 있는 유니크함과 아이덴티티도 갖추었다. 게다가 이번 바젤월드는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의 터치로 탄생한 첫 시계가 공개되는 자리여서 수많은 프레스와 전 세계 시계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고조되었다. 라프 시몬스는 질 선다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를 거쳐 2016년 칼빈클라인에 합류, 지난해 워치 앤 주얼리 광고 캠페인 제작에 참여했다. 그의 실질적인 디자이너 감각이 투영된 시계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칼빈클라인 제품들이 품은 에너지를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브랜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패션 어워즈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 이후 공개되는 그의 첫 컬렉션이자 시계업계에 관심이 더욱 뜨거워 수백에 달했던 것. 칼빈클라인은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 시계 브랜드인 스위스 워치 기술력을 갖춘 스위스 그룹과 만나 탄생했기 때문에 기술력과 디자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올해는 라프 시몬스가 정의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문화, 대담함, 편안함, 편안함의 콘셉트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칼빈클라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심플함과 미니멀함도 놓아냈다. 여성 모델은 시크함과 한복판인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남성 모델은 다양한 소재나 풍부한 컬러 매트로 시카직한 감성을 자극한다. 대체로운 컬러와 독특한 텍스처, 모던한 디자인 등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시몬스의 런웨이에서 영감을 받았다. 실버 또는 블랙 프레임 피니싱이 세련된 인상을 주고, 전체적인 세이프 또한 현대적이다. 다양한 컬러 팔레트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곡선이 살아 있는 둥근 자갈 모양 케이스의 하얀색 레터는 모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시크함이 돋보이는 올 블랙 버전과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스틸 케이스의 두 가지 모델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으로 출시된다. 미니멀은 칼빈클라인의 스타다. 클래식하면서도 절제된 세련미는 빈티지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다. 다이얼 사이즈는 24mm, 35mm 두 가지로 만날 수 있다. '어차피는 라프 시몬스 특유의 레터로 빈티지 무드를 기미한 남성 워치다. 강렬한 컬러 대비 시선을 끄는 다이얼 덕에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이 반길 만한 아이템이다. 43mm 사이즈로,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어우러져 데일리 워치로 그만이다. 42mm의 오버사이즈 다이얼을 장착한 '물문은 칼빈클라인의 디자인 DNA를 고스란히 담은 컬렉션이다. 시계의 장식적 요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 시계는 군더차지 없이 심플한 다이얼과 스트랩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 과시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덜어낸 모습이 당당한 현대 여성의 이미지 그대로다. 칼빈클라인의 주얼리 라인도 매력적이다. 곡선은 자연의 것, 직선은 인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곡선과 직선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려한 라인과 모던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세월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상관없이 언제나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주얼리가 곧 칼빈클라인이 지향하는 콘셉트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공개한 주얼리 라인 중 두 라인인 오버래핑된 형태의 '다블'은 아시아 여성의 가는 손목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브레이슬릿이다. '영'은 서머 시즌 심플한 룩에 무심한 듯 연출할 수 있는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그레이, 블랙, 브라운, 블루 등 총 네 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오닉스, 라피스 라줄리 원석을 사용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고급스러움을 불어넣은 '아워닝' 스파이더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세팅해 화사함이 돋보이는 주얼리 라인 '브릴리언트'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문의 02-2143-1829 에디션 **퀸**



1 바젤월드 메인 홀에 위치한 칼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부스 외관. 2 생동감 있는 컬러를 대담한 부스 디스플레이. 3 라프 시몬스 런웨이에서 영감을 받은 레플 워치. 4 올해 처음 공개한 라프 시몬스의 시계 중 '미-랩' 컬렉션 광고 캠페인. 5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화려함을 더한 '브릴리언트'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이어링. 6 레트로 모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하이스' 워치. 7 브랜드의 스타다시피한 유니섹스 워치 '미-랩'. 8 다이얼의 강렬한 컬러 대비 포인트인 남성 워치 '어차피'. 9 오버사이즈 다이얼의 여성 워치 '물문'.

## 칼빈클라인의 감성이 느껴지는 2018 뉴 컬렉션

수많은 패션 하우스가 존재하고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칼빈클라인의 미니멀은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했다.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본질적인 미학만 남겨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 라이프를 누구보다 일찍 추구한 칼빈클라인에게 그 철학은 새로운 워치 앤 주얼리 컬렉션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가에 라프 시몬스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유니크함과 대담함을 가미해 보다 젊은 감성을 녹여냈다. 디자인부터 칼빈클라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2018 뉴 아이템 레플은 라프



# Sparkle Moment

고유의 반짝임으로 1백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친밀하게 빛나온 스와로브스키. 소재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면서 크리스탈이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는 스와로브스키의 2018 워치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트렌디하고 대담한 컬렉션부터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세련된 워치까지 다채롭게 전개된다.



## 크리스탈 명가에서 세계 명가로 거듭나다

스완 로고의 주얼리 제품만이 스와로브스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와로브스키를 접할 수 있다. 단순한 반짝임을 넘어 크리스탈 그 자체가 된 스와로브스키는 주얼리뿐 아니라 조명과 건축, 그리고 수많은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워치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1895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한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탈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광채를 표현하며 앞서 말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오다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계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스위스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워치 브랜드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마다 성장 중이다. 지난 2017 바젤월드는 브랜드 최초의 여성용 오토매틱 워치를 내놓는 등, 크리스탈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면서 워치메이킹 기술력까지 갖춘 시계를 만들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크리스탈 관련 기술력과 탄탄한 노하우를 갖춘 브랜드답게, 스와로브스키의 워치는 모든 여성의 마음을 뒤흔들 만큼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스와로브스키의 독보적인 영롱함에 매료될 것이 분명하다.

## 모두를 위한 반짝임을 선사할, 스와로브스키

2018 바젤월드에서도 여전히 가장 빛나고, 화려한 부스를 자랑한 스와로브스키. 그 어느 때보다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는, 독창적인 크리스탈 커팅 기술이 돋보이는 모델을 선보였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탈리 콜린(Nathalie Colin)은 이번 컬렉션 공개를 앞두고, "2018 워치 컬렉션은 스와로브스키가 '모두를 위한 반짝임(Brilliance for All)'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부터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 활동에 걸맞은 워치이기 때문이지요"라며 자신 있게 이번 신제품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2018년 스와로브스키 워치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크리스탈 레이크(Crystal Lake)'로,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눈길을 사로잡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이 돋보이는 모델이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케이스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세팅한 다이얼은 마치 맑은 호수의 표면처럼 빛을 반사해 크리스탈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영롱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블루와 실버, 화이트 사파이어 다이얼로 선보이며, 블루와 화이트, 블랙과 토프 컬러 등 네 가지 버전의 가죽 스트랩, 로즈 골드

드와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전개된다. 다이얼 자체만으로도 화려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지어내, 일상생활뿐 아니라 특별한 저녁 모임에도 특유의 눈부신 광채를 표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워치는 '옥테아 럭스(Octea Lux)'다. 브랜드의 대표 라인 '옥테아 클래식(Octea Classica)'을 재해석한 모델로, 한층 더 모던하고 여성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 흐르는 듯한 곡선과 파세팅 크리스탈 베젤이 과하지 않은 은은한 우아함을 드러내 비즈니스 룩에도, 주말을 위한 캐주얼한 스타일링에도 활용 가능한 워치로, 오피스 우먼에게 제격이다. 로즈 골드 톤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신비한 블루 컬러의 천연 가죽 스트랩으로 구성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옥테아 대표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옥테아 노바 밀라네제(Octea Nova Milanese)'도 놓치지 말 것. 이 워치는 트렌디함이 특징인 메탈릭 밀라노 브레이슬릿을 장착, 한층 더 슬림한 실루엣으로 선보여, 고급스러움을 부각했다. 게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세팅하고 68개의 밝게 빛나는 페릿으로 장식한 베젤과 글라스로 매력을 배가했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스포티한 스타일의 '에라 저니(Era Journey)'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과 루비 핑크 컬러의 가죽 스트랩, 로즈 골드 톤으로 코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모두를 위한 반짝임' 테마에 걸맞게 보다 화려하게 업데이트했다. 마지막으로 홀리데이 시즌에 어울리는 '크리스탈린 퓨어(Crystalline Pure)'는 8백50개의 로즈 골드 컬러 크리스탈로 장식한 다크 그레이 가죽 스트랩과 함께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샵메인 골드 컬러 케이스와 매치한 모델이다. 이처럼 대담한 디자인부터 은은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모든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스와로브스키 2018 워치 컬렉션은 일상에 광채를 더해줄 뿐 아니라 스타일링에 약센트를 줄 것이다. 문의 1661-9060 에디션 **아지엔**

1 화려한 무드를 지어내는, 크리스탈로 장식한 스와로브스키의 부스. 2 다이얼 전체를 하나의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장식한 '크리스탈 레이크' 컬렉션. 3, 5 어느 각도에서 봐도 감동할 수 있는 독보적인 반짝임을 선사하는 '크리스탈 레이크' 워치의 가죽 스트랩과 로즈 골드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 4 68개의 크리스탈 페릿으로 장식한 베젤과 트렌디한 메탈릭 밀라노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옥테아 노바 밀라네제'. 6 스와로브스키 부스 내부 모습. 7 8백50개의 로즈 골드 크리스탈을 세팅한 베젤이 돋보이는 크리스탈린 퓨어.





**OMEGA**  
시마스터 1948 리미티드 에디션



**BREGUET**  
클래식 엑스트라-플레이트 5157



**ROLEX**  
오이스터 퍼메주얼 GMT-마스터 II

# extreme Performance

유독 클래식한 모델이 많이 등장한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그만큼 구매욕을 자극하는 소장 가치 높은 위치를 대거 선보였다. 라인 강을 감싸안은 아름다운 바젤의 풍경과 함께 2018 바젤월드에서 첫선을 보인 뉴 컬렉션 위치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에디터 배미진



**BLANCPAIN**  
피프티 퍼센트 바티스카프 애크우얼 캘린더



**BLANCPAIN**  
발레레 그랜드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



**BREGUET**  
마린 에라시옹 마상



CHANEL  
J12 인터아틀

CHANEL  
보이, 프렌드

CHANEL  
무슈 드 샤넬



OMEGA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이플로 8

OMEGA  
씨미스터 다이버 300M

OMEGA  
트레저 컬렉션



**LONGINES**  
콘퀘스트 V.H.P.



**LONGINES**  
레코드 컬렉션



**MIDO**  
바론첼리 트릴로지  
1918 리미티드 에디션



**MIDO**  
멀티포트 GMT



**RADO**  
하이퍼크롬  
크로노그래프



**RADO**  
트루 스타인 네이처 컬렉션

**RADO**  
뉴 다이아마스터



**HAMILTON**  
카키X-원드 오토 크로노



**HAMILTON**  
카키 파일럿 오토 데이 데이트



**CALVIN KLEIN**  
어치브



**CALVIN KLEIN**  
하이논



**TISSOT**  
발라드



**SWAROVSKI**  
옥테아 노바 밀라네제

오메가 02-511-5797  
캘빈클라인 02-2143-1829  
볼가리 02-2143-1825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080-200-2700  
해밀턴 02-3149-9593  
라도 02-2143-1825  
론진 02-6905-3519  
스와로브스키 1661-9060  
브레게 02-3479-1008  
티쏘 02-543-7685  
미도 02-3149-9599  
롤렉스 02-2112-1251  
블랑팡 02-6905-3367



**BVLGARI**  
루체아 투보가스 골드



**BVLGARI**  
루체아 스퀘레톤



**BVLGARI**  
루체아 투보가스 스틸



창의적 건축과 오리지널 디자인의 산실, 비트라(Vitra)

# Artistic exploration

세계적인 디자인 브랜드 비트라(Vitra)가 운영하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현대 디자인사를 총망라한 곳으로, 상징적인 디자인 사례 중 하나다. 올해 <스타일 조선포럼> 바젤 특집호에서 이곳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가 지닌 특별한 때문이다. 아트 바젤과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예술의 도시 바젤에서 라인 강이라는 하나의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독일의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으로 거슬러 가면 이 아름다운 장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젤이라는 도시의 풍부한 감성이 넘쳐흘러 독일 가장자리에 위치한 비트라와 교감한다. 두 도시가 상징하는 예술적인 교집합에 대하여.



### 디자인 역사를 한눈에,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비트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의자들이다. 펜 톤 체어, 임스 체어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들의 의자가 비트라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회사가 단지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독일 바일 암 라인에 위치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대해 알아보라 한다. 단순한 상품 디자인을 넘어 공간을 기획하고, 지금은 모두 대가가 된 디자이너들을 발탁했으며, 한곳에 모으기 어려운 건축가들의 작품을 비트라 캠퍼스라는 이름 아래 모아놓았다. 스위스 바젤에서 독일 바일 암 라인으로 넘어가자마자 자라한, 다시 말하면 인적이 뜬 이 주목받지 못한 공장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곳으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1989년 비트라의 창업자 볼프 펠바움(Rolf Fehlbaum)이 설립했다.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디자인한 이 뮤지엄과 본사가 함께 자리한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건물은 건축물이 갖춰야 할 필수 형태에서 탈피했다. 하얀 석고와 아연판으로 이루어진 부서진 조각 형태를 띠고, 빛으로 가득 찬 매우 복잡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무수히 많은 건축물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이 건물은 본래 펠바움 개인의 소장품을 위한 박물관이었으며, 설립 초기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론 아라드(Ron Arad) 같은 작가들의 소규모 단독 전시를 개최했다. 1990년대에는 찰스 & 레이 임스(Charles & Ray Eames),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회고전 등을 개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지금까지 디자인과 과거, 현재에 대한 연구 및 프레젠테이션에 힘을 쏟아왔고, 건축, 예술, 일상생활 속 문화와 디자인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박물관의 메인 빌딩에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매년 두 차례의 기획전을 개최한다. 세심하게 선별한 디자이너의 전시를 프랭크 게리가 건축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주제 역시 남다른데, 미래의 기술,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인구 이동, 사회 인식 같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 또 디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찰스 & 레이 임스, 조지 넬슨, 베르너 폰 폰, 알렉산더 자라드 같은 인물들의 작품을 포함한 컬렉션을 선보이기에 그의 의미가 남다르다.

### 세계적인 건축물의 생동하는 아카이브, 비트라 캠퍼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비트라 캠퍼스 색션이다. 1981년에 화재가 일어난 공장 지역을 재건하면서 유명한 건축가들과의 협업(비전)을 통해 확장하는 중이다. 화재가 나고 몇 년이 지난 후 영국 건축가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가 공장 출몰을 지었고, 체코 건축가 에바 리츠나

(Eva Jiricna)와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차테리오(Antonio Citterio)는 비트라를 재건축하는 작업을 도왔다. 현재 비트라 캠퍼스에는 프리츠커 상을 받은 건축 스튜디오인도 5개가 자리 잡고 있다. 비트라라는 넓은 대지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을 천천히 채워왔고, 현재도 채워나가는 중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채워지는 이곳을 보노라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공업 단지는 처음에는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엔 적절한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비트라의 기술적인 혁신과 예술적인 탐험 정신 덕분에 놀라운 시그니처 건축 컬렉션이 탄생했다. 프랭크 게리는 물론 일본의 세자마 가즈오(Kazuyo Sejima)와 니시자와 류에(Ryue Nishizawa), 스위스 바젤 출신의 자크 헤어초크(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뫼론(Pierre de Meuron) 등 세계적인 건축가까지 함께해 미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가이자 수집가인 볼프 펠바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주었다.

자하 하디드, 헤어초크 & 드 뫼론이 그린 미래를 보다 그중 최근 터진 자하 하디드의 소방서는 건축적으로나 스토리 면에서도 모두 특별함을 담고 있는,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건축물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뮤지엄(DDP) 건축가로 잘 알려진 자하 하디드는 비트라 캠퍼스에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레스토랑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도인,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신진 건축가였다. 하지만 아랍가르드라는 건축 방식을 고집하고, 화재로 전소된 비트라 공장 구역에 새로운 소방서를 지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디아내막하고 파격적인 소방서 건물은 전 세계 건축계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프랭크 게리도, 자하 하디드도 모두 처음에는 펠바움에게 단지 의자 디자인을 의뢰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었고, 더 큰 프로젝트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건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영향력 있는 건물을 지었다. 비트라가 지금 현대 디자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비트라 캠퍼스에서 가장 최근 변화를 겪은 공간은 바젤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바젤월드 박물관의 건축을 맡은 헤어초크 & 드 뫼론이 2016년 6월 3일 비트라 캠퍼스에 디자인한 사우데포트(Schaudepot)라는 건물이다. 이들은 2001년 프리츠커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세계 문화상(Praemium Imperiale)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 팀이다. 비트라 캠퍼스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비트라 하우스를 설계했을 정도로 비트라와 인연이 깊다. 수년에 걸친 계획 끝에 사우데포트는 마침내 대규모 컬렉션 중 중요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축물의 운동성을 표현한 프랭크 게리의 작품, 파격적인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 산나(SANAA)의 다이나믹함, 일부러 균형을 깨뜨린 헤어초크 & 드 뫼론의 건물은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자신만의 탐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지닌 건축가들의 세계관을 확인하고 싶다면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비트라 캠퍼스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취재



# 2018

Click  
a Calendar

2018 바젤월드에서 쏟아져 나온 신상품 위치 중 국내 소비자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컬렉션이 궁금하지 않은가? <스타일 조선일보>가 각 워치 브랜드 담당자에게 직접 듣고 전하는 올해 가장 주목받을, 실제로 구매 가능한 시계 리스트를 나열한 '제일즈 캘린더'를 공개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고 업데이트된 최신 기능을 탑재한 뉴 워치 쇼핑을 계획 중이라면, 이 페이지를 절대 놓치지 말 것.



## SWAROVSKI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레이크  
레퍼런스 5415996 가격대 미정  
입고일 7월 입고 예정 문의 1661-9060



## ROLEX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GMT 마스터 II  
레퍼런스 126710BLRO 가격대 미정  
입고일 하반기 입고 예정 문의 02-2112-1251



## BLANCPAIN

블랑팡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GMT  
레퍼런스 6678-127-558 가격대 1천8백만원대  
입고일 하반기 입고 예정 문의 02-6905-3367



## RADO

라도 트루 선라인 네이처 컬렉션 리프  
레퍼런스 27006912 가격대 2백43만원  
입고일 7월 입고 예정 문의 02-2639-1964



## MIDO

미도 커맨더 빅 데이트  
레퍼런스 M021.626.11.061.00 가격대 1백20만원대  
입고일 4월 입고 완료 문의 02-3149-9599



## LONGINES

론진 마스터 컬렉션  
레퍼런스 L2.910.4.77.6 가격대 3백30만원  
입고일 12월 입고 예정 문의 02-6905-3519



## BREGUET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8908  
레퍼런스 G8908BR/5T/864/D00D  
가격대 4천4백만원대 입고일 5월 예정  
문의 02-6905-3571



## TISSOT

티쏘 슈랑 데 투엘  
레퍼런스 T099.407.11.048.00 가격대 939만원  
입고일 4월 입고 완료 문의 02-543-7685



## CHANEL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코드 코크 세라믹  
레퍼런스 H5147 가격대 미정  
입고일 7월 입고 예정 문의 080-200-2700



## HAMILTON

해밀턴 카키 파일럿 데이 데이트  
레퍼런스 H6460531 가격대 1백31만원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3149-9593



## CALVIN KLEIN

캘빈클라인 레벨  
레퍼런스 K8P231V6 가격대 23만원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2143-1829



## FREDERIQUE CONSTANT

프레드릭 콘스탄트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  
레퍼런스 FC-718GRWM4H6 가격대 4백60만원대  
입고일 하반기 입고 예정 문의 02-310-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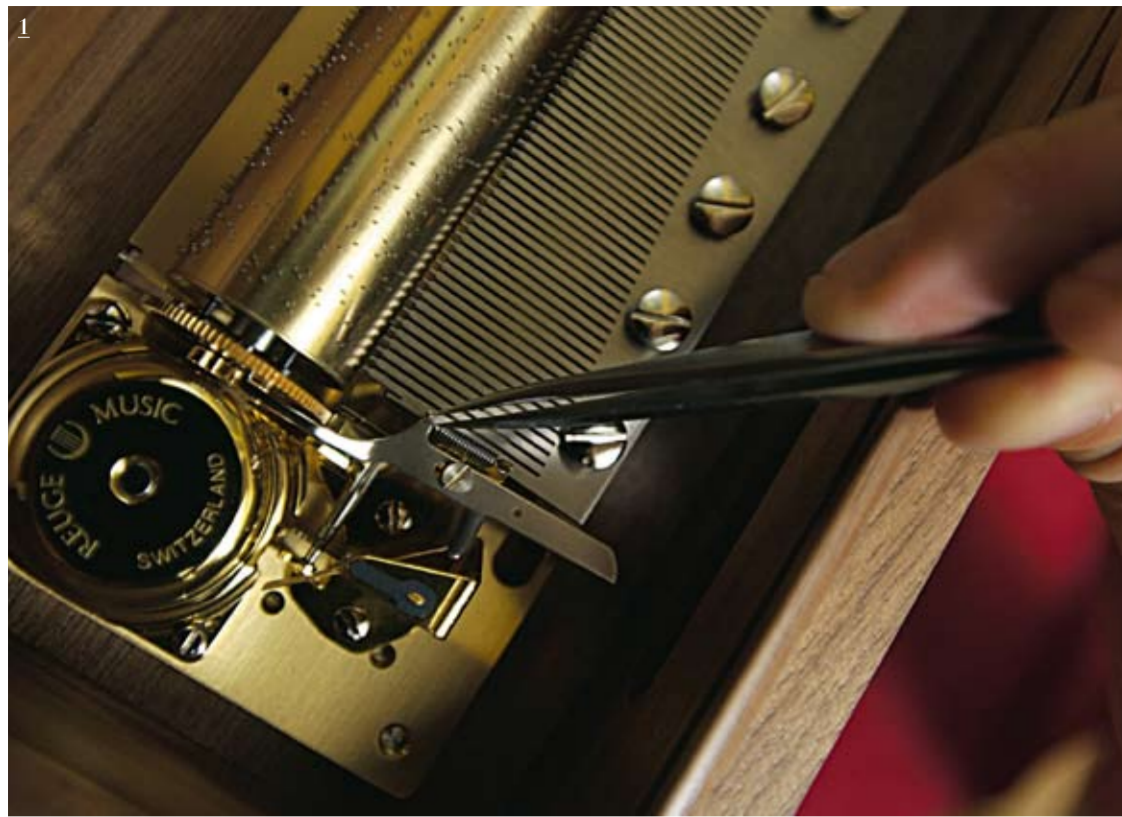
## OMEGA

오메가 트레저 컬렉션  
레퍼런스 428.17.36.60.04.001 가격대 6백만원대  
입고일 4월 입고 완료 문의 02-511-5797



## BVLGARI

블가리 루체아 스칼레톤  
레퍼런스 102878 가격대 1천5백만원대  
입고일 4월 입고 완료 문의 02-2056-0172



1, 4 오르골 무브먼트. 루즈의 모든 무브먼트는 빠짐없이 튜닝 과정을 거쳐 더욱 완벽하게 완성된다. 2 루즈 무브먼트에 사용하는 부품은 기계적인 불가능한 세심한 기술로 정밀하게 제작된다. 3 기계에서 3개의 멜로디가 연주되는 무브먼트를 탑재한 프랑크스텔 72노트. 5 스위스 바젤에서 첫선을 보인 뮤직 마신 1-1. 6 루즈의 오르골을 들으며 사뭇하는 것을 즐기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7 스타워치 우주선 타이피스트를 기초로 한 뮤직 마신 3. 루즈의 인 하우스 무브먼트를 정확히 2개의 실린더로 여섯 가지 멜로디를 감성할 수 있다.

# Heal the soul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달라이 라마, 팝 아티스트 엘턴 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 놀라운 이름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무엇일까?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오르골, 바로 루즈(REUGE)다. 전 세계 유일의 최고급 오르골 메이커인 루즈는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정상급 명사들이 애호하는 브랜드다. 스위스 정부에서 지정한, 스위스를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선물, 영혼까지 치유하는 스위스 오르골 루즈를 소개한다.

## 전 세계 명사를 사로잡은 특별한 오르골, 루즈

이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는 오르골의 역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18세기 말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들이 고안한 자동 연주 기구로, 네덜란드어 'orgel'이 변형된 것인데, 영어로는 뮤직 박스(music box)라고 불린다. 금속 핀을 박은 원통을 돌리면 이것이 음을 내는 콦(comb) 모양의 금속 조각을 튕겨서 음을 연주하는 원리다. 1770년경 유럽 귀족들 사이에 유행되어 담배 케이스, 콤팩트, 인형 상자 등에 오르골 장치를 담은 것이 지금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중 하이엔드 오르골로 유명한 루즈는 스위스 명품 오르골 브랜드다. 이 독특한 브랜드가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주목받는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 2013년 바젤월드에서 MB & F와 칼레베리온에 선별된 뮤직 마신 1 그 주 인공이다. MB & F의 창립자 막시밀리안 부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럭셔리 오르골 메이커인 루즈와 스타워치 우주선용 기초로 한 디자인인 뮤직 마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오르골 디자인인 데다, 초고가 시계에서나 볼 수 있던 극한의 파인싱을 거대한 오르골에 구현했기에 까다로운 시계업계에서까지 주목받은 것. 현재 루즈의 뮤직 마신은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때마다 선주문을 통해 품절을 기록하고 있다. 벤츠의 최고급 명차 마이바흐, 페라리와 칼레베리온에 이은 오르골 브랜드 루즈의 진정한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1865년 찰스 루즈(Charles Reuge)가 오르골 뮤직 박스 산업의 유명한 중심지인 스위스 생-크루아(Sainte-Croix) 마을에 첫 번째 뮤

직 포켓 워치 기계를 설립한 것이 루즈의 시작이다. 창립자는 시계의 무브먼트 원리를 이용해 뮤직 박스의 실린더와 소형 콦을 조립해 음악을 연주하는 장치를 만들어냈고, 이는 아들 알베르트 루즈에게 이어져 더 긴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 후손인 귀도 루즈는 오르골 뮤직 박스를 하이엔드 상품으로 다시 고안했고, 루즈가 지금까지 오르골의 명가로 인정받게 되는 기반을 닦았다. 최근 다양한 오르골이 생산되고 있지만, 1백50년간 이어져 내려온 세공 기술의 전통을 유지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루즈가 유일하다. 전자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실린더 방식을 채용하는데, 이 방식은 스위스에서 처음 고안되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르골의 구조다. 길이가 다른 금속 핀이 머리 및 모양으로 나뉘어 붙어 있는데, 이 금속 핀을 하나씩 튕기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으로도 아름답다. 태엽과 현, 음조 정가 제품을 구성하며, 기계를 오픈한 상태에서도 아름답다는 것이 큰 매력 중 하나다. 제품은 무브먼트 조립이 마무리되기까지 까다로운 공정을 거친다. 시계와 마찬가지로 사람 손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은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는 루즈의 철학을 보여주며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까다로운 기준이 된다. 상감 기법과 인레이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싱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비롯해 우울증, 두통 등을 치유한다고 알려진 오르골의 마법 같은 매력이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02-516-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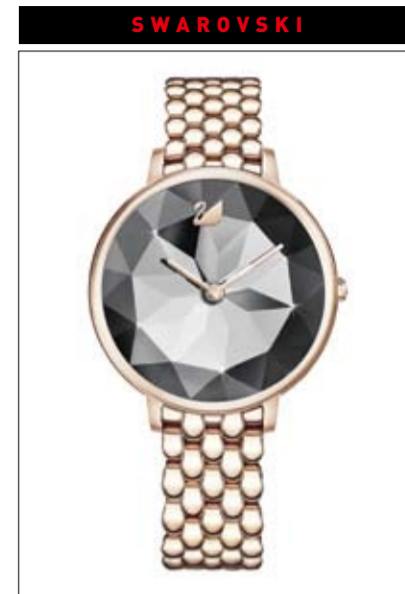
**롱진 마스터 컬렉션 에뉴얼 캘린더** 롱진은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적용한 '마스터 컬렉션 에뉴얼 캘린더'를 공개했다. 새로운 기계식 무브먼트로 제어되는 연간 캘린더 기능과 644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4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오메텍 L897 칼라바를 장착했다. 문의 02-6905-3519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보이, 프렌드 컬러 스트랩**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는 '보이, 프렌드'의 컬러 스트랩 버전을 선보였다. 57지 컬러의 엘리제이터 스트랩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케이스가 조화를 이루며, 모든 앵글은 폴리싱 및 새틴 피니싱 처리했다. 문의 080-200-2700



**불가리 루체아 투보가스** 불가리는 브랜드의 대표 여성 워치 라인, 루체아 컬렉션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모던한 디자인의 투보가스 브레이슬릿을 적용한 루체아 투보가스를 선보였다. 투보가스 브레이슬릿은 골드 혹은 스틸 링크가 서로 맞물림을 이어서는 것이 특징이며, 놀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02-2056-0170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레이크** 스와로브스키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크리스탈 기술이 돋보이는 '크리스탈 레이크'를 선보였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케이스에 담긴 한 조각의 시어이어 크리스탈로 세공한 워치 다이얼은 손목에 고급스러운 품격을 선사하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문의 1661-9060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8908** 브레게는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의 첫 타임피스, 레인드 네이플 8908을 재해석한 모델을 공개했다. 다이아몬드 1백28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케이스와 타히타인 머더오파블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다이얼을 갖추었으며, 오리지널 모델의 주요 특징을 드라마틱하게 강조했다. 문의 02-6905-3571



**블랑팡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GMT** 블랑팡은 언더-리드 코렉터 기능을 갖춘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GMT를 선보였다. 오팔린 다이얼과 레드 골드 로마숫자 인덱스를 갖춘 레드 골드 모델과 화이트 다이얼에 화이트 골드 로마숫자 인덱스를 갖춘 스틸 모델, 2가지 버전을 출시한다. 문의 02-6905-3367



**오메가 씨스타터 다이아 300M** 오메가는 '씨스타터 다이아 300M' 모델의 탄생 25주년을 맞아 한정 에디션 레이드린 다이얼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42mm 사이즈의 새로운 '씨스타터 다이아 300M'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을 탑재해 높은 정확성과 성능, 항자성을 자랑한다. 문의 02-511-5797



**캘빈클라인 미니멀** 캘빈클라인은 빈티지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하면서도 절제된 세련미를 담은 '미니멀' 컬렉션을 출시한다. 패브릭 패턴을 적용한 화사한 주얼리 워치로, 손목에 편안하게 감기는 얇은 스틸 브레이슬릿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2143-1829



**티소트 티-레이스 MotoGP™ 리미티드 에디션 2018** 티소트 모터 바이크에서 영감을 얻은 '티-레이스 MotoGP™' 리미티드 에디션 2018을 공개했다. 글라스 케이스 뒷면에 실크 프린트한 공식 로고는 MotoGP™의 승인 도장이자 8천8백38점만 한정 제작한 이 시계의 가치를 드러낸다. 문의 02-543-7685



**미도 비르첼리 창립 1백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는 올해 창립 1백 주년을 맞아 비르첼리 1백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레 오메라하우스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모티브로 했으며, 악기 가죽 질감을 표현한 브라운 컬러의 송이머가죽 스트랩으로 한층 클래식한 감성을 자아낸다. 문의 02-3149-9599



**해밀턴 카키 필드 매키넬 38mm** 해밀턴은 군용 시계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카키 필드 컬렉션의 신제품 카키 필드 매키넬 38mm를 소개한다. 3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3 핸드 디스플레이, 나트 스트랩 등 군용 시계 역사와 오리지널 모델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문의 02-3149-9593



**라도 다이아마스터** 라도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절제된 다이얼이 돋보이는 '다이아마스터'를 선보였다. 투명한 카키 필드 컬렉션의 신제품 카키 필드 매키넬 38mm를 소개한다. 3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3 핸드 디스플레이, 나트 스트랩 등 군용 시계 역사와 오리지널 모델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문의 02-2639-1964